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서울광장 15만 명 운집
 폭염 속 눈물로 기도해
 남가주 지역 한인교계도
 8월 15일 각 지역별
 연합기도회로 모여



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기도회에 참가한 약 15만 명의 성도들이 조국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폭염도 기도의 열기는 이기지 못했다.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가 9일 오후 서울광장 일대에서 약 15만 명(경찰 추산)이 운집한 가운데 거행됐다. 지난 2010년 8.15 대성회 이후 한국교회 최대 규모의 집회로,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간절히 염원했다.

기도회는 총 4부에 걸쳐 진행됐다. 최우 목사(대표준비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 '감사와 회개'는 애국가 제창으로 문을 열어 김삼환 목사(대표회장)의 개회 선언 및 대회사, 양병희(한교연 대표회장)·황수원(한장총 대표회장)·정영택(예장 통합 총회장)·박무용(예장 합동 부총회장) 목사의 환영사,

고훈 목사(안산제일교회)의 축시 등으로 이어졌다.

김삼환 목사는 대회사에서 "한국교회는 민족이 중대한 전환점에 설 때마다 함께 모여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해 왔다"며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했다.

그는 "독일의 통일이 그러했듯이, 이제 우리를 옥죄는 휴전선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운동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오늘의 이 기도회가 민족의 가장 비극적인 역사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한국교회의 뜨거운 기도가 한반도의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2부 '사랑과 생명'은 오정현 목사(공동 대표회장)의 인도로 시작되어 장중현(대표회장)·이영훈(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의 메시지 선포로 이어졌다.

[관련기사 4면에 계속]

보수남미장로교 PCUSA와 교류중단

보수 남미 장로교 교단 두 곳이 동성결혼을 인정한 미국장로교(PCUSA)와 교류 중단을 선언했다. 브라질독립장로교회(IPCB)와 페루 복음주의장로개혁교회(EPRCP)는 최근 PCUSA와의 협력 관계를 더는 유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IPCB는 장로교뉴스서비스(PNS)를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PCUSA가 지난 2011년 동성애자 성직 임명을 허용한 이래로 이 교단과의 교류를 지속할지의 여부를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와 브라질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PCUSA가 최근에 내린 결정은 교회의 삶과 신앙에 대한 성경의 권위와 원칙은 물론 우리의 공통된 개혁교회의 유산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동성애를 둘러싼 견해 차로 해외 협력 교단이 PCUSA와의 교류를 중단한 사례는 앞서 2011년에도 있었다. 당시 멕시코 전국장로교회(NPCM)는 PCUSA와의 교류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광복 70주년 기념 OC 교계 연합 감사예배”

음악회, 세미나... OC한인회관과 길갈 미션 등에 후원

오렌지카운티 지역 교계 단체들이 연합해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감사예배와 함께 일제 치하를 겪은 신앙 선배들을 초청해 위로하고 나아가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음악회를 연다. 이에 더해 미국 동성결혼 합법화 대처에 관한 특별 세미나도 있다.

이 모든 행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감사한인교회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OC교협, OC목사회, OC원로목사회, OC장로협의회,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등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OC 지역의 경우, 삼일절은 교협, 광복절은 평신도연합회가 각기 행

사를 주최하는 전통이 있으나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모든 단체가 연합해 행사를 치르기로 했다.

이날 감사예배의 1부 예배는 김기동 목사(OC교협 회장)의 인도로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한다. 특별히 고안수 산 여사의 유족과 고 박영창 목사의 유족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는 순서도 있다.

지난 6월 24일 소천한 안 여사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녀로서 미 해군 장교로 복무하며 미주 한인인의 위상을 드높였을 뿐 아니라 도산의 애국 정신을 미주에도 널리 알린 바 있다. 7월 28일 소천한 박 목사는 순

교자 박관준 장로의 아들로서 독립운동과 교육운동, 이민목회에 헌신한 인물이다.

이 외에도 일제 치하에서 강제 징용돼 나라 잃은 설움을 몸소 겪은 허경삼 목사(OC중앙성결교회 원로), 정필흠 목사(로렐장로교회 원로), 방인호 장로(평신도연합회 초대 이사장) 등 3인을 초청해 위로의 꽃다발을 전달할 계획이다.

주최측은 1부 예배의 헌금을, OC한인회관 건립에 교계도 참여한다는 의미로 기부할 예정이다.

2부 음악회는 평신도연합회 윤우경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이렇게 양육하라”

남가주성결교 목회자 가족수양회

남가주성결교회교역자회(회장 이은만 목사)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이렇게 양육하라'는 주제 아래 목회자 가족 수양회를 개최했다. 라스베가스 앤털롭캐년 일대에서 이뤄진 이 수양회에는 총 102명의 목회자 가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기독교대안성결교회에서 미주 목회자들을 위해 재정적으로 후원해 이뤄졌다. 특히 강사로 총회 교육위원장인 허상봉 목사가 참여해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란 강의를 전했고 교육국장

인 유윤중 목사가 '성결교회 평신도 양육과 제자훈련', '교회학교의 혁신, 소그룹 반 목회' 등 실질적으로 목회와 직결된 강의를 진행했다. 위싱턴 유니온교회를 담임하는 조의석 목사는 자녀들을 위한 선교 집회를 진행했다.

회장 이은만 목사는 "바쁜 사역에 쫓겨서 잊어 버리고 살았던 것들을 찾아서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다"면서 "심신의 휴식과 수련, 그리고 영적 충전을 통해서 사역의 현상이 더욱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3면 인터뷰 '저 낮은 곳을 향하여' <2> 김범수 집사
 >>13면 선교 '2015 대만선교대회'의 의의'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최상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사랑으로 제공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소셜워커,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돌봐드립니다.
 정부인증기관으로 환자분에게 금전적 부담이 없습니다.
 24시간 대기 서비스 제공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 박영심 간호부장
 www.sierra-hospice.com Tel: (213) 380-1100 Cell: (213) 700-6989

Earn your Associate degree in just ... **ONE YEAR!**

LAORT COLLEGE
 WE PUT EDUCATION TO WORK

- Accounting
- Business Management
- Administrative Assistant
- Phlebotomy
- Medical & Clinical Assistant
- Medical Office Management
- Pharmacy Technology Administration
- Digital Media
- Computer Aided Drafting & Design (CADD)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한국어 상담 그레이스(Grace)
 직 통 : T(213)703-6863
 Office : T(323)966-5444

WE OFFER:

- Financial Aid and Scholarships are available (for those who qualify)
- Job and Career Placement Assistance
- Day and Evening Classes
- Transportation Assistance
- Student Visa Assistance
- Accredited by ACCET

LAORT.EDU
 800 NON-PROFIT SCHOOLS WORLDWIDE
1.800.998.2678

MID-WILSHIRE CAMPUS
 643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48

SAN FERNANDO VALLEY CAMPUS
 14519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행복한 교회·행복한 성도”

주안예교회 창립 2주년 기념, 정필도 목사 초청 말씀사경회 개최



주안예교회 '말씀사경회' 초청 강사 정필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주안예교회(담임 최혁 목사)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간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주제로 말씀사경회를 가졌다.

이번 말씀사경회는 주안예교회 창립 2주년을 맞아 정필도 목사(부산수영로교회 원로)를 초청, 세리토스채플과 벨리채플 두 곳을 오가며 열렸다.

정필도 목사는 3일 동안 진행된 말씀사경회를 통해 ‘가장 좋은 교

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사명’ 등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말씀사경회 중 지난 8일 오전에는 주안예벨리채플 본당에서 주안예교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청지기 세미나도 가졌다. 이 세미나에서 정목사는 초대교회 집사의 표준을 예로 들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삶이라고 말씀을 전했다. 또 정목사는 “모든 문제 앞에서 교회의 리더는 입 꼭 다물고 기도해야 합니다”라며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문제가 복이 됩니다”라며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안예교회 담임 최혁 목사는 “창립예배 후 처음 갖게되는 말씀사경회에 하나님께서 주안예교회를 꼭 필요한 말씀을 정 목사님을 통해 전해 주셨다. 앞으로 주안예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귀한 시간이었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라고 했다.

한편, 주안예교회는 2013년 5월 26일 다우니에서 개척했으며 현재 세리토스와 벨리 두 지역의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성도를 제자화하는 교회 등의 4가지 목회비전을 이루어 가는 교회이다.

이영인 기자

광복 70주년 기념예배

OC교계 연합, 동성훈 합법화 대처 세미나 등 개최



이번 행사를 소개하며 OC 지역 교계 단체의 지도자들이 감사한인교회에서 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1면으로부터 계속] 2부 음악회에서는 테너 이준실, 리브위스퍼스, 딜리버러스, CTS여성합창단 등이 연주에 참여한다. 음악회 수익금은 미 서부 남북 중단 사이클링에 기부된다.

이 사이클링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이해 조국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캘리포니아 주 부내나 밖에서 워싱턴 주 타코마까지 미 서부를 남북으로 1,250마일 가로질러 달린다. 철인 3종 경기 프로선수인 문영용 목사가 참여한다.

이번 음악회 수익금과 개인 후원자들의 후원금은 중독자를 치유하고 선교하는 길갈미션감사의집에 기부된다.

3부 회복과 결단의 세미나는 광재필 목사(OC목사회 회장)의 사회로 태평양법률협회 주성철 목사가 “동성훈 합법화에 따른 교계 대처 방안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 세미나는 동성결혼 합법화 시대에 교회와 목회자, 성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동 목사(OC교협 회장)는 이번에 개최될 감사예배와 관련해 “이번 행사는 광복 후 70년간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발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라며 “우리 모두가 회복을 얻고 비전을 세우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충현선교교회 수넴홀 개관”

하나님의 사람 섬긴 수넴 여인처럼 8일 개관 감사예배드려 선교사들에게 개방

30년 전 설립돼 현재까지 약 70여 선교사를 전세계에 파송한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중기 목사)가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관 “수넴홀”을 개관했다. 선지자 엘리사를 극진히 섬겼던 수넴 여인으로부터 이름을 따왔다. 이 선교관은 총 5개의 방을 갖추고 있으며 선교사들의 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 교회는 미주를 방문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숙소와 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초 선교관 구입을 계획했다.

70만 달러를 목표로 작성 현금을 실시한 결과 성도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목표를 훌쩍 뛰어 넘어 약 80만 달러가 모금됐다.

충현선교교회는 수넴홀 개관을 감사하며 8일 오후 개관예배를 드렸다. 설교한 박신욱 선교사는 “수넴홀은 지난 30년 간 충현선교교회의 신실한 선교 사역의 열매이자, 향후 더 성숙한 선교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축하했다.



전세계에 70여 명 선교사를 파송한 충현선교교회가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관인 수넴홀을 개관했다.

민중기 담임목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라면서 “수천 년 전에 수넴에 있던 엘리사를 위한 수넴홀이 21세기에 이르러 글렌데일에 마련되었다”고 했다. 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된 선교사들을 위하여, 성도들이 이 어

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귀중한 헌금을 했다”고 전했다.

수넴홀은 충현선교교회 파송 선교사는 물론 선교사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다.

문의) 818-549-9191

김준형 기자

사랑의 책가방 전달식

위탁가정 어린이들에게 새 책가방(학용품) 333개



한인가정담소의 카니 정 소장, 에스페 송 디렉터 등이 6일 아동보호국을 방문해 한인들의 따뜻한 사랑을 담은 책가방을 대신 전달했다.

한인들의 따뜻한 사랑이 아시안 위탁가정 어린이들에게 전달됐다. 한인가정담소(소장 카니 정 조)가 7월 한달 간 진행한 백팩 드라이브(Backpack Drive)에서 기부된 333세트의 책가방과 학용품이 6일 LA 아동보호국으로 전달됐다. 이 선물들은 아시안 부서의 소셜워커들이 어린이들에게 직접 전해진다.

상담소 측은 “현재 아동보호국에 소속된 위탁가정 어린이는 약 3만 7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18세가 되어 위탁가정자를 떠날 때,

이 중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은 1%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성인이 되고 자립해야 하는 시기까지 적절한 교육을 바탕으로 삶의 기반을 다져 가는 일을 격려하고자 시작된 사랑 나눔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고 했다.

BBC은행, 글로벌어린이재단, 오픈뱅크, 프리즈마 패션스쿨, 스파코, 카리스교회,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그룹 및 개인 후원자들의 참여로 새 책가방 333개와 학용품 333 세트가 마련되어 전달됐다.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미주한인 신학교 최초 유일의 D.Miss. (선교학 박사)과정!!

학위과정

박사	선교학 박사 (D.Miss) 42학점
석사	목회학 석사 (M.Div) 105학점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69학점
	선교학 석사(MA ICS) 48점 100%온라인가능
학사	신학사(BA) 100%온라인가능

- 우수한 교수진
-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 저렴한 교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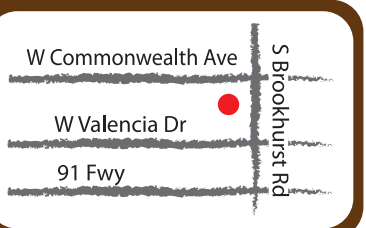
- 전과정 유학생 SEVIS I-20 발급
- 미 연방정부 장학금 및 그랜트 지원
- 미 국방부 학비 지원(TA)
- 미 군목 장교 지원
- GMU 학교 장학금 수여

- 온라인 과정:수시모집
(온라인 원서 접수 www.gm.edu)
- English Track (전과정을 영어로 강의)
- LA Extension Class: 주님의 영광교회內 Tel: (213)479-4500

가을학기 원서접수 마감: 2015년 8월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고객지원)

Email: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어느날 LA국제공항에서 찌그러진 압력밥솥을 가슴에 안고 기대에 들뜬 얼굴로 비행기를 기다리는, 60대 초반의 안경 낀 사내를 우연히 만난다면 당신은 그를 본 것이다. 험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깊을 길 없어, 치과기구 소독에 안성맞춤인 밥솥과 더불어 1년에 한 달 이상을 자비로 선교현장에서 살며 시간의 십일조를 지키는 LA 한인타운 치과 의사 김범수 집사.



에티오피아 크리스천스쿨 학생들과 함께한 치과의 김범수 집사. 시간과 물질을 드려 어두운 땅에 복음의 씨를 심는 게 그의 최대 기쁨이다.

저 낮은 곳을 향하여 <2>

치과의 김범수 집사

“시간의 십일조 드려 땅끝까지 복음 전파”

그는 아프리카, 러시아, 중국, 북한, 멕시코, 중남미, 파푸아뉴기니 등 땅의 끝끝 같은 문명의 사각지대를 누비며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왔다. 얼마전부터는 동양선교교회 선교부 책임까지 맡아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올해만도 모로코, 몽골, 러시아 등을 방문하고 20년째 드나드는 멕시코 교도소에도 5차례나 갔다. 9월에는 페루 선교가 그를 기다린다.

내년에는 케냐와 말라위, 꼬박 48시간을 가야 하는 파푸아뉴기니 등을 찾는 굵직굵직한 일정이 잡혀 있다.

“많은 나라에서 치과치료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 마을에 처음 온 의사’라는 말을 들은 곳도 있어요. 선교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무슨 큰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 문명과 담 쌓은 나라를 많이 가다 보니 온종일 서서 아이들의 이빨을 300개 뺐던 적도 있습니다. 하루 40~50개 빼는 게 보통인데, 한 번은 케냐에서 아이들에게 항생제를 주면서 하루 3번 식후에 복용하라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열구리를 찌르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 하루 한 끼 먹어’. 다 찢어진 옷을 입은 맨발의 아이들이었지만, 얼굴 표정만은 저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이빨쟁이인 내가 잘 하는 일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기쁘다”는 그는 지상 명령에 순종해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결코 자기의 섬김을 자랑하지 않는다. 비록 불편한 식사와

모태신자로 무덤덤한 신앙생활 하다

40세에 뜨겁게 주님 만나 선교 헌신

아프리카 중남미 중국 북한 등 방문

사랑의 인술로 주민들에게 예수 전파

내년에도 파푸아뉴기니 등 찾은 계획

잡자리, 교통 등 척박한 환경을 겪는다 해도 자신은 잠깐 방문했다가 풍요로운 미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임을 잊지 않는 까닭이다.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블라디보스톡 인근에서 고려인들과 러시아인들을 20년간 섬겨온 은행원 출신의 선교사,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에 척박한 나라에서 선교하는 후배 치과의사, 연변과기대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며 4년간 ‘실버 미션’을 실천 중인 72세 장로님, 아이비리그를 나와 유엔에서 근무한 경력자임에도 개발도상국에서 월 300달러를 받으면서 10년째 노하우를 나누주는 5개 국어가 능통한 한인 젊은이, 한국말을 할 상대가 없어 우리가 가지만 해도 위로가 된다는 선교사, 이런 분들을 보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처음부터 그가 선교에 타는 목마름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부모가 물려준 모태신앙을 감탄한 ‘못해! 신앙’으로 삼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신나게 놀다가 주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진료하는 김범수 집사.

이면 성경책 들고 교회 뜰만 밟는 생활을 오래 했다. 그러던 중 불혹의 나이에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났다.

“약 20년 전 빅베어에서 열린 프레스 디아스에 갔다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 진행되는 순서에 무덤덤하게 참여하고 있었는데 봉사자로 온 이들은 기쁨에 겨워 섬기고 좋아서 손뼉을 치며 찬양하는 등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하나도 안 기쁘게 말이지요. 그러다 불을 꺼 행사장이 캄캄해졌는데 누군가가 대야를 들고 다가와 제 더러운 발을 씻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눈물샘이 터져 펄펄 울었습니다.”

김 집사는 “마치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발을 씻기시는 느낌이었다. 메말라 있던 제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토록 많이 울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말로 당시를 회상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김 집사는 선교지에 나가지 않는 평소에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알링턴 코너에 자

리집은 ‘김범수 치과’에서 온화한 미소와 말량말랑한 목소리로 환자들을 보살핀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음을 잘 알기에, 새벽이면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기 위해 제단에 나아가 무릎 꿇는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재림의 날까지 선교의 길을 가다가 그길 끝에서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맞게 해 달라는 것이 그의 간절한 기도다. 아울러 그는 자신의 작은 일상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의 환희’가 전해지고, 그 환희가 선교 열망을 싹 틔워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께 청한다.

그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품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교도소 사역에 마음을 쏟고 있는 김재경 전도사와 돕는 배필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

대학생 딸과 아들(엘리슨, 아이잭)을 두고 있는 가운데 비행기 조종의 꿈을 가진 아들이 오지로 복음 전파러 가는 사람들을 경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기를 그는 은근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폐렴을 앓으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아들은 그에게 또 하나의 ‘은혜의 표지’다.

추수하는 날의 열음냉수 같이 주인의 마음을 지원하게 하는 사자가 되기 위해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김 집사는 그동안의 선교여행 에피소드 등을 모아 ‘치과가 간다’ ‘예수님 치과’ ‘사랑은 동사다’ ‘사랑한다, 날마다’ 등의 책을 냈다.

김장섭 전문위원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미주대한신학대학교
신입·편입·편목 학생모집

한국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한강이남에서 가장 큰 종합대학교)는 1948년 김치선 박사께서 설립하여 수많은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미주대한신학대학교**는 1995년 총회인준 미주지역 교역자 양성기관으로 주정부 연방 정부, **주정부교육국인가** (Education Code 9487(e)(l)로 B.A., M.Div., D.Min., D.D.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정규 **신학대학교로 신입생, 편입생, 교단교육생(편목)**을 모집하니 수시로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미주대한신학대학교의 특징

- 기간 : 학년제가 아니라 학점제로 누구든지 단기간에 학점을 따면 전과정을 마치고 정식 학위를 받을 수 있음
- 학비 : 본 신학대학교는 교단장학금으로 누구든지 **반값 등록금**으로 공부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처함
- 안수 : 본 신학대학교의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는 전도사, 선교사, 목사로 안수를 받아 파송을 받을 수 있게함

DLC Course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경제적, 시간적 여건으로 강의 출석을 할 수 없는자를 위한 과정임 (Distance Learning Course), 이 과정을 통해 본 대학에서는 보내는 학습교재와 지침을 따라 이수하면 학점인정을 받게 됨. 단 7과목(21학점)에 한함.
(DLC 과목 : 전도학, 구약개론, 신약개론, 기도학, 모세오경, 공관복음, 바울서신)

총장:권오달박사 / 부총장:박효우박사, 김상돈박사 / 학장:박병구박사 / 이사 :류당열 박사
토랜스분교학장:김영구 박사 / 스포츠선교학장:김영배 박사 / 인랜드분교학장:강부웅 박사
연락처: (562)924-3330(총장), (213)905-0103(학장), (323)731-9819(이사장)

학위과정과 이수학점

남,여전도사 Diploma	60학점	세례교인으로서 학력제한 없음
평신도선교사 Diploma	60학점	세례교인으로서 학력제한 없음
신학사 B.A.	120학점	고등학교 졸업자, 일반대학 2년 수료자
신학석사 M.A.	60학점	신학사학위 소지자, B.A. 학위소지자
목회학석사 M.Div	96학점	B.A., M.A.학위소지자나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목회학박사 D.Min	48학점	M.Div 소지자로 목회경력 3년 이상된 자
신학박사 D.D	48학점	Th.M 소지자로, M.Div 소지자, D.Min 소지자 추가학점만 취득
교단교육 편목	12학점	조직신학, 교단신학, 교단사, 총회헌법을 Campus, On/Off로 이수 이수증, 이력서, 목사안수증 사본을 제출하면 남가주노회에 가입됨

- **구비서류** : 이력서, 입학원서(추천서 첨부), 여권사진 2매를 E-mail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서류심사 후 입학여부를 통지함
- **봄학기** : 매년 1월 ● **여름특강** : 봄학기에 이어서
- **가을학기** : 매년 9월 ● **겨울특강** : 가을학기에 이어서

미주대한신학대학교
E-mail : daeshin47@hanmail.net(학교), daeshin47@naver.com
L.A. 본교 CAMPUS: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한국과 미국 한인 2세 청소년들이 함께 '유네스코 등재 한국문화 알리기 공공외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유네스코 등재 한국문화 알리기 캠페인”

한국과 미국 한인 2세 청소년들이 함께 지난 8월 5일 유엔플라자 세미나실과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유네스코 등재 한국문화 알리기 공공외교 캠페인>을 펼쳤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문화원 국제 NGO인 밝은사회국제본부(GCS International, 조정원 총재)와 평화나눔공동체(APPA, 최상진 대표)가

주최하고 유엔회원 NGO들이 후원한 이번 캠페인은 한국에서 선발된 청소년 대표들과 대학생들, 그리고 한인 학생들 20여 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서포터즈들이 주관했다. 이번에 선발된 청소년들은 주미 한국대사관, 월드뱅크, IMF, 공무원 자녀들, 주재원자녀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은 유엔직원들과의 세

미나를 통해 한국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 후에는 자신들이 직접 만든 영문 홍보용 포스터와 전단지 등을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렸다. 평화나눔공동체 최상진 대표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리더십 기회는 미래 국제기구진출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BMC 신창민 박사 초청 강연회 개최”



'통일은 대박이다' 저자 (앞줄 중앙)신창민 박사 초청 강연회가 열렸다.

북미주 한인 기독교실업인회(이하 CBMC) 시애틀 지회는 6일 '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 신창민 박사를 초청해 지난 5일 강연회를 개최했다.

신 박사는 대한민국 평화 통일의 당위성과 방법을 설명하며 CBMC 회원들의 기도와 협력을 촉구했다. 시애틀 CBMC는 '성경적인 경영

과 전도와 양육, 일터 사역, 영적 재 생산 등과 같은 CBMC 기본 정신을 토대로 비즈니스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 시애틀 지회는 소명 의식을 바탕으로 정직과 검소, 감사와 나눔, 섬김의 리더십으로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성경적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일터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궁극적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함으로써 비즈니스와 사회 변화를 그 핵심사역으로 삼고 있다. 김 브라이언 기자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1면으로부터 계속] 2부 말씀선 포에 이어 공동 기도문 낭독, 광복의 감사와 통일 열망 통성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시편 126:5-6)를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한 장종현 목사는 “이제 한국교회는 회개의 기도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자.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정신으로 하나되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자”고 역설했다. 이영훈 목사는 '하나가 되리라'(에스겔 37:15-17)를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불가능

은 없다. 온 민족의 소원인 통일이 이뤄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라며 “인간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자”고 했다. 유만석 목사(대표 준비위원장)가 인도한 3부 '평화와 통일'에선 소강석(대표준비위원장)·김상현(기감중부연회 감독) 목사가 메시지 선포자로 나섰다. 먼저 '통일의 꽃길을 열어 주소서'(에스겔 34:25-26)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선포한 소강석 목사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의 물꼬를 트고 민족의 제단 위에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며 “독일의 통일을 교회

가 이뤄낸 것처럼, 한반도의 통일을 한국교회가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 4부 '희망과 전진'에서도 뜨거운 기도는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평화통일을 위해, 지구촌의 평화와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리고 대미는 손인웅(평화통일을위한기독교인연대 상임대표)·조일래(기성 전 총회장)·곽도희(기침총회장)·우중휴(예장 합신 총회장) 목사 등 교단 및 단체 대표 12명이 선언문을 낭독하며 장식했다. 한편, 남가주 지역 교계도 오는 15일(토)에 지역별로 연합하여 광복 70주년 맞이 기념행사를 일제히 개최한다. 김진영 · 이영인 기자

환태평양영화제 성황리 폐막

제7회 환태평양영화제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2007년 한인 켄 안 선교사가 문화 선교를 목적으로 시작한 이 영화제는 미 주류사회도 주목하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년에도 12개국에서 80여 편의 영화가 출품되었고 40여 명으로 구성된 강사들이 영화제 기간 워크숍을 맡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영화제에서는 한국 영화 '드랍아웃'과 '더 테너'가 특별 상영돼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6일 저녁에는 레드카펫 행사와 시상식이 거행됐다. 자녀를 가질 수 없음을 알게 된 한 남성의 이야기를 다룬 일본 영화 'Cicada'가 Best Director, Best Feature Narrative, Best Actor 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는 바이올라대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0일간 일본 도쿄에서 촬영해 더욱 화제가 됐다. Best Impact 상은 판타지 영화 'The War Within' 켄 안 선교사(좌)와 이장호 감독(우)



켄 안 선교사(좌)와 이장호 감독(우)

베데스다 총동문회장 백석영 목사 선출



지난 10일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 정기총회가 학교 채플실에서 열렸다. 신임회장에는 백석영 목사(주의사랑선교교회 · 사진 정중앙)가 선출되었다.

미주 예심 전도대학 제12기 수강생 모집

전도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 환영. 재미있는 어프러치와 쉬우면서도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 행복하고 탁월한 전도자로 훈련받는 대학이다. 일석 이조 전도법, 순간포착 전도법, 10초 메시지 등 환상적인 전도법들을 강의하는 미주예심전도대학은 9월 1일(화) 개강하며, 총 13주에 걸쳐 진행된다. 미주예심전도대학은 남가주빛나리교회에서 진행하며, 강의 일자와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다. 주소는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1752 문의) 714)401-9874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해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2015학년도 가을학기(개교&개강) 아메리카 신학대학원&신학대학 신입생,편입생,통신생 모집

본교소개	모집내용	공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BPPE의 확정(학위) 받음. •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주의 신학을 근본으로 하여 Westminster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교리의 표준으로 삼음. • 보수신학의 요람인 한국 합동총회 및 (사당동)총신대학교와 노선,뿌리,전통 같음. • 2015년(제37회총회)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인준받음(동부:뉴욕총신 서부:본교) • M.Div(목회학석사)졸업자는 강도사교시 후 목사안수 받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FF9800; color: white;"> <th>구분</th> <th>학 위</th> <th>수업연한</th> <th>학점</th> <th>지원자격(세례3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대학부 Bachelor</td> <td>신학사 (B,Th)</td> <td>4년 (8학기)</td> <td>120</td> <td rowspan="3">고 졸</td> </tr> <tr> <td>상담학사 (B,C,C)</td> <td>3년 (6학기)</td> <td>120</td> </tr> <tr> <td>목회학석사 (M.Div)</td> <td>3년 (6학기)</td> <td>96</td> </tr> <tr> <td rowspan="4">대학원 Master</td> <td>상담학석사 (M.C.C)</td> <td>2년 (4학기)</td> <td>36</td> <td rowspan="4">대 졸</td> </tr> <tr> <td>신교학석사 (M,M)</td> <td>2년 (4학기)</td> <td>36</td> </tr> <tr> <td>교육학석사 (M,C,E)</td> <td>3년 (6학기)</td> <td>36</td> </tr> <tr> <td>신학석사 (Th,M)</td> <td>2년 (4학기)</td> <td>36</td> </tr> <tr> <td rowspan="5">박사원 Doctor</td> <td>목회학박사 (D.Min)</td> <td>2년 (4학기)</td> <td>48</td> <td rowspan="5">목회학석사 혹은 신학석사</td> </tr> <tr> <td>상담학박사 (D.C.C)</td> <td>2년 (4학기)</td> <td>48</td> </tr> <tr> <td>신교학박사 (D,M)</td> <td>2년 (4학기)</td> <td>48</td> </tr> <tr> <td>교육학박사 (D,C,E)</td> <td>2년 (4학기)</td> <td>48</td> </tr> <tr> <td>신학박사 (Th,D)</td> <td>2년 (4학기)</td> <td>52</td> </tr> <tr> <td>편목</td> <td></td> <td>1년(2학기)</td> <td>(헌법정치,조직신학,교회사)</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학 위	수업연한	학점	지원자격(세례3년)	대학부 Bachelor	신학사 (B,Th)	4년 (8학기)	120	고 졸	상담학사 (B,C,C)	3년 (6학기)	120	목회학석사 (M.Div)	3년 (6학기)	96	대학원 Master	상담학석사 (M.C.C)	2년 (4학기)	36	대 졸	신교학석사 (M,M)	2년 (4학기)	36	교육학석사 (M,C,E)	3년 (6학기)	36	신학석사 (Th,M)	2년 (4학기)	36	박사원 Doctor	목회학박사 (D.Min)	2년 (4학기)	48	목회학석사 혹은 신학석사	상담학박사 (D.C.C)	2년 (4학기)	48	신교학박사 (D,M)	2년 (4학기)	48	교육학박사 (D,C,E)	2년 (4학기)	48	신학박사 (Th,D)	2년 (4학기)	52	편목		1년(2학기)	(헌법정치,조직신학,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서구입: 직접 혹은 우송함 •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학원서 1통(본교양식) 2. 자필이력서 1통 3. 사진(명함판) 3매 4. (최종학교)졸업장 copy 혹은 졸업증명서(2중 택1) • 편입생: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각1통 • 면접&Orientation: 본교 2015년 9월1일(화) 6:00pm • 개교&개강: 9월3일(목) 6:00pm • 통신생: 세계 어디서나 • 문의: (714)321-4678 akr1234@hanmail.net
구분	학 위	수업연한	학점	지원자격(세례3년)																																																		
대학부 Bachelor	신학사 (B,Th)	4년 (8학기)	120	고 졸																																																		
	상담학사 (B,C,C)	3년 (6학기)	120																																																			
	목회학석사 (M.Div)	3년 (6학기)	96																																																			
대학원 Master	상담학석사 (M.C.C)	2년 (4학기)	36	대 졸																																																		
	신교학석사 (M,M)	2년 (4학기)	36																																																			
	교육학석사 (M,C,E)	3년 (6학기)	36																																																			
	신학석사 (Th,M)	2년 (4학기)	36																																																			
박사원 Doctor	목회학박사 (D.Min)	2년 (4학기)	48	목회학석사 혹은 신학석사																																																		
	상담학박사 (D.C.C)	2년 (4학기)	48																																																			
	신교학박사 (D,M)	2년 (4학기)	48																																																			
	교육학박사 (D,C,E)	2년 (4학기)	48																																																			
	신학박사 (Th,D)	2년 (4학기)	52																																																			
편목		1년(2학기)	(헌법정치,조직신학,교회사)																																																			

America Seminary & College

Campus: 170 Bimini Place, Los Angeles, CA 90004 | 분교: Denver, Colorado
 총장: 아브라함 목사(M.Div/Th.M/D.Min/Th.D/Ph.D) | 학장: 사무엘 목사(Th.M)

- 개교기념: 각 학위 선착순 10명씩 등록금 80% 감면(졸업까지)
- 복한 자유이주민: 등록금 100% 감면(형상)(졸업서류 불발요)
- 통신생,교역자 및 직계가족: 등록금 30% 감면(형상)

사랑의 열매

요한복음 14:21-2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 사랑의 열매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자기가 나타나지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의 자격을 회복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고 협동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라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 드리기를 애타게 소원하시는 줄 믿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기대 가운데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자기가 나타나지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2.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열매 맺는 삶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지극히 사랑하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희생으로 죽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소원에 일치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많은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할 위치에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의

제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겪으시며 죽기까지 사명을 다하신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궁극적 소원의 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신령한 열매를 많이 맺어 드리는 것에 예수님의 희생에 따른 최고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말씀절대주의, 말씀제일주의 신앙

본문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로 인정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원칙입니다. ‘나의 계명’ 즉, 예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아가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임을 인정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6-17)하신 말씀(계명)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관계가 끊어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장 귀한 줄 알고, 그 말씀의 권위를 절대시 하면서 말씀대로 살것 노라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다짐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그 말씀에 의해서 회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다시 사는 하늘 시민권자로 거듭났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목적은 말씀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시는 하늘의 영생복락이라는 조건을 허락받은 소망의 후사인 자격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 절대주의, 제일주의 신앙으로 절대 복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얻어놓은 구원이 영원토록 보장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한 생활의 열매가 곧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연합하여 맺어 드리는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반응을 나타냅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기피하려고 합니다. 이해 타산(利害打算)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회개시키라는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향했던 요나를 막아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맡기신 일을 이루어낼 때까지 집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죽을 지경에 이른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죽음을 각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으며 그 계획을 위해 요나를 다른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멸망 직전의 니느웨를 회개시켜 구원 얻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고 다른 사람이 그 열매 맺기를 원치 않으시고, 요나를 돌이켜 그와 더불어 니느웨를 구원시키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전의 요나가 아닌 거듭난 사역자로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니느웨를 회개시킨 것입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선

본문 23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은 말씀대로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영생과 하늘나라 후사(後嗣:대를 잇는 자식)

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중재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사랑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구속의 은혜를 믿어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자격을 얻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좇아 그 법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신앙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혜사라는 성령을 파송시켜 주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다시 하나님과 인연을 회복하면 우리가 이제는 피조물과 조물주라는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인연을 축복받아서 우리는 아버지의 법을 지키고 그 인연을 더욱 깊이 있게 가꾸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역사하시어서 나라는 존재가 예전의 죄악된 습관을 고쳐 살게 하시고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감적인 신앙에 젖어 사는 신자라면, 하나님 말씀의 법칙을 생명선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게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완전히 나를 점령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감적 체질로 사는 신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 백성이라는 책임을 저주십니다. 이것을 꼭 이루어 믿고 체험하십시오. 이것을 꼭 이루어 믿고 체험하십시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리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Sponsored by Orange County Christian Organizations

기독교교회협의회 / 원로목사회 / 목사회 / 장로협의회 / 평신도연합회 (총괄)

광복 70주년

08.15.2015(토) 2PM
감사한인교회(김영길목사)
6959Knott Ave. Buena Park

참석대상 : 목회자 교계 및 평신도 지도자 선교사 기업인 및 단체장
후원 : 지역 교회 및 교계 방송 언론사 및 크리스천 기업 지역단체

1부 광복감사예배

사회 : 김기동목사 말씀 : 김영길목사
그때를 기억하며 (공로패 증정 및 감사와 위로의 시간)


2부 축하 콘서트 (중독회복을 위한 길갈미션 감사의 집 후원)

사회 : 윤우경회장
미서부남북종단 싸이클링 프로젝트 출범식(문영용목사)
출연 : 테너 이준실/러브위스퍼스/Deliverus 연주팀
CTS여성합창단 등

3부 회복과 결단 세미나

사회 : 객재필목사
동성온 합법화에 따른 교계 대처방안
강사 : 태평양 법률 사무소 주성철 목사


문의처 213.500.5449 / 714.521.0991(감사한인교회)



목사 청빙

토랜스 제일 장로교회(PCUSA 소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역할 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 **청빙대상**
1) 임기목사(2년)
- **청빙자격**
1) 정규대학, 정규신학대학원 졸업자(M.Div 이상)
2) 목사안수 후 목회 경력 5년 이상 하신 분
3)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는 분
4) 한국어/영어로 소통이 가능하신 분
- **구비서류**
1) 본인 이력서와 가족 소개서
2) 신앙고백서와 목회계획서
3) 학력 증명서와 목사 안수증 사본
4) 최근 6개월 내 설교 CD 2부
- **기타사항**
1) 교회 소개는 www.1church.com을 이용해 주십시오.
2) 1차 심사 후 기타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본 및 증명서, 추천서 등)
3) 본인 Email 주소도 첨부하고, 문의는 Email : tfpcusa@gmail.com으로 연락하시고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바람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서류마감 : 2015년 8월 31일**
제출처 : 토랜스 제일장로교회 청빙위원회 Tel : (310)618-2222
주 소 : 3435 Wilshire Blvd, #1075, LA, CA 90010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초기 한국교회의 수난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 올 때, 한국은 이미 4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기독교가 한국에 정착하면서 오랫동안 내려오던 문화 속에 아무 충돌없이 정착했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그것은 문화와의 충돌이기도 했고, 수구파와 기독교자들이 새로 들어온 사상과 선교사들을 적대하고 질시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개신교가 한국에 선교되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 시기적으로 개신교 선교가 시작 될 때는 조정에 의한 천주교의 박해가 있었던 후였다. 개신교가 천주교로 오해되어 개신교를 사학(邪學)이라 박해했다. 가족 중 신앙을 받아들인 이가 있으면 호적에서 그 이름을 삭제하는 일은 보통 일이었다. 며느리가 믿는다고 온 가족이 그를 거의 죽을 지경까지 구타하고 머리털을 뽑아 버리기도 했다. 마침내 맨몸으로 쫓아내는 고통을 가하는 경우도 흔했다.

감리교 선교사 존스(G.H.Jones)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받은 수난에 대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들의 의식(儀式)에 불참하고 조상과 지방신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상당한 박해를 받고 있다. 어떤 지방에서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박해가 자심하다”고 보고한다. 아펜젤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난 여자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글을 쓴 일도 있다.

1888년에 있었던 ‘어린이 소동(The Baby Riots)’은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됐다. 언더우드가 한국에 나와 고아들을 모아 양육했다. 그런데 일반 민중이 이를 오해하여, 선교사들이 어린이들을 잡아 눈알을 빼어 약을 만드는 데 쓴다. 식탁에 올리기도 하며, 외국에 노예로 팔기도 한다는 뜬소문이 떠돌았다. 이 일로 선교사 전체가 커다란 위협에 빠졌고 선교 사역이 크게 위축되었다.

1894년 4월 평양에서는 서서히 확산돼 가는 기독교 세력을 억압하려는 음모가 획책됐다. 평양감사 민병석(閔丙奭)이 유교 수호와 서양인의 흑세무민(感世護民) 방지를 명분으로 박해를 가했다. 장로교회인 한석진과 감리교회인 김창식, 그리고 신자 수인을 체포하여 거의 죽도록 구타하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하는 사건이 터졌다. 이에 평양에 주재하던 장로교 선교사 마펫(S.A.Moffett)과 감리교 선교사 홀

(W.J.Hall)이 서울의 미국과 영국 공사관에 급히 연락을 취했다. 외교 경로로 이 사실을 국왕에게 보고하여 어명으로 체포된 자들을 풀어 준 일이 있었다.

선교사를 직접 박해한 사건이 1899년 황해도 황주에서 발생했다. 선교 여행을 하던 장로교 리(Graham Lee)선교사가 황주에 도착했을 때 사교(邪敎) 박멸 명분을 내세워 박해를 가했다. 예배당을 때려 부수고, 교인들을 난타하며 이 목사의 책을 불태우고, 현금 56달러를 강탈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을 보고받은 당시 주미 대리공사 알렌은 즉시 한국 정부에 항의 각서를 보내고 범법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몇 사람의 개인적 원한으로 전국적인 기독교 박해가 획책된 일도 있었다. 1899년 서울에 전차(電車) 공사가 한 참 진행됐다. 이 때 경무사(警務使) 김영준과 내장원경(內臟院卿) 이용익은 대중들이 전차를 타게 되면 재원(財源)이 고갈될 것을 염려하여 왕에게 상소를 올렸다. 전차 건설이 완료된 후에도 전차 타지 않기 운동을 뒤에서 부추겼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국왕에게 이 일에 대해 불평 하자, 원한을 품고 국왕에게 개신교가 끼치는 피해를 낱알이 상소했다. 이들은 1900년 12월 1일을 기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선교사와 전국 기독교인을 박멸하라는 밀서를 보낼 계획을 세웠다.

이 무서운 음모의 내막을 처음 알게 된 사람은 선교 여행 중이던 언더우드였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체 없이 한국인들이 읽을 수 없게 라틴어로 예비슨에게 전보를 보냈다. 예비슨은 이 사실을 알렌에게 알리고 교회와 교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알렌은 즉시 국왕을 알현하고 사태를 보고했다. 고종 황제는 각 도에 전보를 발송하여 이의 즉각적인 중지를 엄히 명했다. 이로써 김영준 등의 음모는 불발에 그치고 교회는 일축적 박

의 위기를 넘긴 일이 있었다.

한편, 천주교도들에 의한 박해도 있었다. 천주교나 개신교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 교회다. 오늘날은 에큐메니컬 정신에 의해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두 교회간의 갈등이 자심했다. 물론 이런 갈등은 교단이 정책적으로 선도한 것은 아니고 대개 개인이나 개 교회 단위에서 이루어진 국지적 일이었다. 초기에 천주교인들이 개신교도들에게 악행을 하고 핍박한 한 사실이 여러 문서에서 확인된다.

최초 박해는 1891년 황해도 재령읍교회에서 일어났다. 예배 중 로마 천주교인들이 몰려와 남녀교인들을 협박 공갈하며 “대성교(大聖敎)를 불봉(不奉)하고 열교(裂敎)를 오신(誤信)함은 불가(不可)라 하여 태형(荊刑)하고 방송(放送)”한 사건이 일어났다. 역시 재령 원내동(垣內洞)교회 교인들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을 때, 100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들이닥쳐, 예배당 공동 사용을 요구하며 교인들을 구타한 사건이 있었다.

1902년 황해도 신환포(新煥浦)에서 천주교인들이 그들의 성당을 지으면서 개신교도들에게 건축비 기부를 강요했다. 이에 응하지 않자, 이들을 끌고 가 감금하고 구타한 사건이 있었다. 이 소식을 듣고 황해도 관찰사는 포졸들을 보내 범인을 체포하려했으나 천주교도들은 오히려 포졸들까지 구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서울에 곧 보고됐고, 자연히 외국인 사회에도 알려졌다.

천주교인들이 이렇게 방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뒤에 안악(安岳) 근처에서 전교활동을 하던 빌헬름(J.Wilhelm)이란 성격이 괴팍한 신부 때문이었다. 당시 외국인들은 치외법권(治外法權)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들도 함부로 할 수 없었다. 특히 신부들은 프랑스 공사관의 절대적 보호를 받고 있어 그의 횡포를 다스리기 어려웠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초기 개신교회는 천주교회로부터 적지 않은 박해를 받았으며, 일부 몰지각한 신부들의 방자함이 자심했음을 엿볼 수 있다.


기독교는 어느 시대, 어디 곳에서나 고난의 가시밭 길을 헤쳐 나가야 하는 역경을 거치게 되어 있다.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목회자의 정체성과 건강성

유치부(Pre K-K)전도사 청빙

선한목자 장로교회는 LA 동부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유치부(Pre-K)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실 파트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1. **지원자격**
(1) 신학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
(2) 이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하신 분
(3) 합법적인 미국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2.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신앙간증 포함), 추천인 2명 기재요함 (관계, 연락처 포함 - 추천서는 소정의 서류 심사 후에 요청드립니다)
3. **주요사역** : 주일 예배 및 주중모임(금요일 7:30pm) 인도와 기타 관련된 사역
4. **제출하실 곳** : clarkjdsn@yahoo.com (To, Pastor Clark Choi / 최 클락 목사-교육부 담당목사)
5. **제출마감** : 2015년 8월 20일(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선한목자 장로교회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최근 여러 전문적인 연구들이 교회의 건강을 위한 목회자의 자세와 역량의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자명하게 드러난 점은 건강한 정체성을 지닌 목회자가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는 다분히 상식적인 그러면서도 매우 중요한 결론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건강한 정체성이 우선적으로 소명의식, 사명감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조지 바나 연구소는 지난 20년 간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소명과 관련한 임상 조사에 따라 다음 같은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즉, “건강한 목회자는 자신이 목회자의 역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런 교회 목회자에게는 특별한 역량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사와 재능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교회 공동체를 끌어가는 목회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건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임이 분명하다. 소명에 대한 확신은 자연스럽게 사명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명을 이루기 위한 헌신의 과정에서 은사가 더욱 개발되고 발현된다. 이렇듯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교회 목회자는 말은 사역의 자리에서 최선의 역량을 집중한다. 영혼들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헌신은 소명의식과 사명감에서

이다. 반면에 긍정적인 주장(Carl G. Jung)을 하는 이들에 따르면, 종교적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목회자들의 역할은 분명해 진다. 목회자의 바른 정체성에서 비롯된 건전한 동기부여는 교회 멤버들의 삶에 영적인 의미, 선한 가치와 덕스러운 자세를 유도하고 진작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심민수 교수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비롯되기 때문이다. 소명의식과 사명감에서 비롯된 정체성은 건전한 동기유발을 가능케 한다. 종교마저도 사유화되기 쉬운 시대에 신앙공동체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위치에 있는 목회자의 역할은 특별히 중요시 된다. 종교를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종교적 영향력이 정신건강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상반된 결론에 이르고 있다. 부정적인 주장(S. Freud)은, 종교가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다. 불건전한 목회자의 강박적이고 집착적 이데올로기로 인해 그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런 종교 행태 안에서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나올 수 없기 마련

이다. 반면에 긍정적인 주장(Carl G. Jung)을 하는 이들에 따르면, 종교적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목회자들의 역할은 분명해 진다. 목회자의 바른 정체성에서 비롯된 건전한 동기부여는 교회 멤버들의 삶에 영적인 의미, 선한 가치와 덕스러운 자세를 유도하고 진작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목회자의 건강한 정체성이 한 공동체의 정신과 영성에 건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교회의 건강성 회복의 문제는 목회자의 정체성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긍정하지 않은 권력화된 왕정 종교지도자들이 영권을 휘두르며 평생 한 길을 가고 있는 정직한 목회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광야시대의 황금 송아지가 교회 사역의 중심을 차지하여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결한 영을 지닌 목회자들조차도 스스로 무능한 존재라 한탄케 한다. 이런 혼란기에 우리는 다시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 다윗의 입술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견고한 정체성)을 새롭게 하소서(시51:10)” 다.

www.sellacare.com SEARCH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SELLA CARE®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비한 영양제 M3® 세트

유태인 코서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물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양제

M3® 세트

- ✓ 100% Organic (유기농)
- ✓ Non-GMO (유전자조작 無)
- ✓ All Natural (순수천연)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제품소개



M3

이 영양 보충제는 다양한 아미노산 결합 복합체입니다. 선진기술로 만들어진 이 제품 속에 포함된 무기질은 콩, 효모균, 보통 무기질 결합 복합체에 쓰이는 우유 단백질보다는 통쌀 농축물에 반응합니다. 셀라케어에 의해 사용된 특별한 쌀 농축물은 일반 쌀보다 아미노산 함량이 무려 7배가 높으며, 상당한 양의 콩에서만 볼 수 있는 아미노산의 배열 단면을 가집니다.



VC 2000

이 제품의 특징은 캡슐로 되어 있으며 질 좋은 천연재료에서만 추출되는 바이오프라보노이드가 들어 있어 감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가장 질 좋은 Rosehips와 Acerola에서 추출된 최상의 비타민 C입니다.



ME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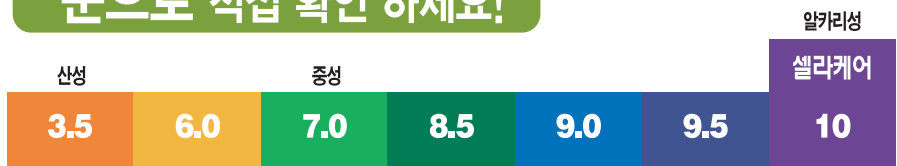
우리 몸의 가장 풍부한 무기물, 칼슘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의 99% 이상의 칼슘이 우리 몸의 구조를 지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남은 1%는 체내 혈액, 근육, 세포 내 체액 속에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의 수축, 혈관 수축과 팽창, 호르몬과 효소의 분비, 신경계의 전달기능에 필요합니다. 칼슘의 생리학적 기능은 칼슘 섭취량이 불충분할 때 정상적인 혈액 내 칼슘 함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뼈의 염분을 제거하는 등 우리 인체의 생존에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식이요법을 통한 칼슘의 섭취는 건강한 골격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GOLDEN WATER

이 제품에 함유된 비타민 D는 베타d, 감마 d와 같은 면역관련 물질들이 혼합된 토크페롤과 100% 천연의 에스테르화되지 않은 알파토크페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본사(LA)	213,435,9600	LA벌몬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튼 흡소핑	714,496,7887	토랜스	213,268,0844
시온약국	213,344,9730	LA벌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나하임	714,469,5809	뉴욕,뉴저지	201,983,8333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LA 57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얼바인	949,330,9009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시카고 알바니아약국	847,699,1511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밸리	818,642,8223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에스약국	323,733,7788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오렌지카운티	213,247,2244	놀워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텍사스 (로알백화점)	972,620,2900
LA 다운타운	213,798,3333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파이오니아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캐나다	604,872,1669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LA내쳐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714,690,0120	로랜하이츠	626,912,5727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미래의 주인공들 예수 복음으로 키운다”

기독교일보 초대석 남가주한인청소년비전센터 이사장 김 영 대 목사

한인사회의 희망의 등불인 청소년. 그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커뮤니티의 미래는 어둡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같이 자명한 진리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은 아직까지 사회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에서조차 덜 여운 가치관 때문에 방향하기 쉬운 그들에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쏟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려고 청소년들의 가슴에 그리스도를 심는 일을 지난 2007년 이래 쉼없이 펼쳐 온 남가주한인청소년비전센터(Korean Youth Vision Center)가 시선을 집중시킨다.



남가주한인청소년비전센터 이사장 김영대 목사는 “청소년들이 바로 성장하지 못하면 한인사회의 미래는 없다”며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했다.

“김영길 목사님, 장재원 목사님, 김중현 목사님, 지금은 전국에 계신 황영대 목사님 등과 뜻을 모아 뉴욕의 전문가를 초청해 조언을 듣는 등 1년의 준비를 거쳐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양육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마음이 절실했지요. 바른 신앙을 길러줄 때 그들이 미국 사회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리라는 것과 그 일을 해야 할 책임이 어른들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중부교회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KYVC를 산하단체(현재는 독립)로 출범시키고 4년째 이사장을 맡아 대표 전동은 목사와 더불어 헌신하고 있는 김영대 목사는 청소년 이야기를 할 때면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진다. 질문을 넘었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함을 잘 아는 그는 뚜렷한 비전을 갖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남은 생애를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미라다에 사무실을 둔 KYVC가 가장 심혈을 쏟는 것은 이종언 어구사가 자유로운 1.5세 및 2세 세대 목회자들을 한인 학생들이 많은 고교 캠퍼스로 파송, 신앙지도를 하도록 하는 학원 사역. 교회 부목사와 전도사인 이들은 매주 한 차례 맡은 학교를 찾아 2시간여를 학생들과 보내며 ‘KYVC 클럽’을 이끈다.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힘든 문제를 놓고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가 하면 형 오빠, 누나 언니가 되어 그들의 고민을 상담해 준다. 사무총장 1명을 비롯 7명이 LA

고교, 세리토스고교, 가고교, 사이프러스고교, 웨스턴고교, 어바인고교 등을 맡고 있다. 장차 케네디고교, 옥스퍼드고교, 서니힐스고교, 트로이고교 등에도 클럽을 세워 현재의 6개에서 12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자기가 사는 지역 주변의 학교를 섬기는 젊은 사역자들이 KYVC의 기둥들입니다. 차 기쁨에 불과한 활동비만 받고도 사명감에 불타 사역하는 이분들이 있기에 많은 학생

5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단원으로 가입한 이 합창단은 작년에 창단되었으나 후원이사들과 학부모들의 지원에 힘입어 지난 7월 시애틀과 캐나다 밴쿠버의 6개 교회를 순회하며 공연할 정도로 탄실한 규모를 갖춰가는 중이다. 앞으로 1년에 4차례 콘서트를 개최하고 모닝스타 오케스트라도 만들 계획이다.

매년 여름 개최하는 자녀사랑찬양제 또한 관심을 끈다. 지난달 열린 이 행사에는 모닝스타는 물론 이

이종언어 하는 1.5세 사역자들 파송 9년째 고교 캠퍼서 학생 신앙지도 백일장 찬양제로 가정 바로 세우고 청소년합창단 창단 순회공연 갖기도

들이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고 걸걸로 나가고픈 젊은 날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크리스천클럽을 학교에 만드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언젠가 한 학교의 교감으로부터 우리 단체가 들어간 이후로 교내 범죄가 줄었다는 말을 듣고 용기백배했습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KYVC는 대부분 그 학교에 재직 중인 한인 기독교인 교사가 다리를 놓아주고 기존 크리스천 클럽의 협력을 얻어 교육현장에 뚫고 들어간다.

또 하나의 주요 활동은 학생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 사역. 이 단체 대표를 지낸 김영길 목사의 딸 앤 윌리엄스씨가 지휘하는 ‘모닝스타 유스콰이어’가 그 중심에 있다.

화, 배재, 송실 고등학교 등 7개 미션스쿨 합창단이 출연했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쓰인다. “이 특이한 이름의 콘서트는 자식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관심과 대화임을 부모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부모들이 생업에 바빠 방치하는 사이에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목회자 가정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한 번은 마약에 중독된 청년 몇 명을 만나 대화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런 구렁텅이에 빠졌느냐’고 묻자 그중 하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부모는 저와 아무 관계도 없



앤 윌리엄스씨가 지휘하는 KYVC 산하 모닝스타 유스콰이어가 샌프란시스코의 한 교회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예 자식 취급도 안 해요라고 답하더군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들의 사랑 부족이 자녀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KYVC가 마약 복용을 예방하기 위한 ‘해피 라이프 세미나’와 술 담배 인터넷 등 각종 중독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미나를 마련하는 것도 이 까닭이다.

이밖에 청소년들이 뿌리인 조국을 잊지 않도록 하는 사업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삼일절, 광복절 감사예배 및 기념식을 갖는가 하면 한글날이면 크리스천 신앙과 부모의 사랑 등을 작품으로 빚어내는 백일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KYVC는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대통령 봉사상’을 준다”며 “앞으로 한국 학생들을 미국에 초청하고 이곳 학생들에게는 모국 체험 기회를 주는 상호교류 프로그램과 청소년 수양회를 시작하고 싶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을 지낸

그는 부인 김순옥 목사(스탠튼감리교회 담임)와 사이에 둔 두 아들(성수, 인수)을 견고한 믿음과 화목한 가정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내과전문의로 반듯하게 키워냈다. 큰 아들은 연방 의회가 전국 젊은 의사 15명에게 수여하는 리더십상을 받았으며, 작은 아들은 라스베가스 베스트 닥터로 선정됐다. 또한 라팔라연합감리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섬기면서 연복회(연세대 출신 목회자 모임) 산하 연세아카데미 원장을 맡아 영적 리더들의 지속적 성장을 돕는 리더십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한인 청소년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입니다. KYVC는 기도하며 맘 흘리면 언젠가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확신하며 녹록하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역에 많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후원 문의 (714)392-9576 김영대 이사장, (714)904-6298 전동은 대표

김장섭 전문위원

201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호라이즌대학교</p> <p>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상담학 석사: 신학/목회학/상담학 박사: 신학/상담학</p> <p>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p> <p>TRACS 정회원 인준 특징: Sem 1-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회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p>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미주대한신학대학</p> <p>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 리더십의 준비.</p> <p>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p>솔로몬대학교</p> <p>땀과 눈물로써 제자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자(마태복음28:18-20)</p> <p>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p>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p> <p>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p> <p>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p>	<p>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p> <p>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p> <p>5100 S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p> <p>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I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p> <p>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p> <p>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p>	<p>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p> <p>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p> <p>총장: 류종진 박사, 이사장: 김광민 목사 1818 S. Western Ave. Suit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us / aeuimaster@gmail.com</p>

펜실베니아 중대형 장로교회

동성혼 지지 PCUSA 탈퇴 추진 가속화돼



베들레헴 제일장로교회 (사진 출처 = 페이스북)

성도수가 2,600명인 펜실베니아주의 한 중대형 규모 장로교회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미국 장로교(PCUSA) 탈퇴를 추진하고 있다.

베들레헴 제일장로교회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노회가 늘어나고 있는 PCUSA에서 탈퇴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 교회의 리더십들은 지난 7월 PCUSA에서 탈퇴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후 지난 7월 16일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리더들의 투표 결과 찬성 19표 반대 1표로 PCUSA 탈퇴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

서신은 “우리는 지난 20여년간 신학적 해석과 특정 이슈에 대한 지지 관행과 관련된 교단의 방향성에 있어서 변화를 주목해왔으며, 최근에는 이에 대한 우려가

매우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이 교회의 PCUSA 탈퇴 안건은 오는 9월 열리는 리하이노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 교회의 PCUSA 탈퇴는 교회 재산 등의 문제로 인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PCUSA의 다수의 노회들은 지난 5월 결혼에 대한 정의를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에서 ‘전통적으로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지만, 두 사람의 결합’으로 변경하는 것을 통과시켰다.

이후 많은 PCUSA 소속 교회들이 교단 탈퇴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미 수백개의 교회들은 탈퇴 절차에 돌입했다. 해외의 장로교단들도 PCUSA와의 협력 관계를 끝내고 있다.

브라질 독립장로교회와 페루 복음주의 장로개혁교회가 대표적이다.

존 파이버 목사

기독교인들의 영적전쟁



존 파이버 목사 ©로잔운동 홈페이지

존 파이버牧사는 최근 ‘desiringGod’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기독교인들의 일상에서 매일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탄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아침식사로 원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내일 아침에도 기독교인으로 살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버牧사는 이날 베드로전서 5장 8-9절을 본문으로 한 5분 메시지를 통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이니라”라는 성경 본문을 읽었다. 그는 “마귀를 사자로 묘사한 이 본문에서 마귀가 한 끼 식사거리로 먹기 원하는 것은 근육이나 뼈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했다.

파이버牧사는 이어 누가복음 22장 31-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사탄은 베드로의 인생에서 믿음을 빼앗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파이버牧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의 믿음이 실패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나는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도 모두 실패할 수 있지만,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성애 및 동성결혼에 대한 미국 장로교한인교회 전국총회장 담화문

미국장로교한인교회(National Council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NCKPC) 전국 총회장 배현찬 목사가 7월 29일 미국장로교단(PCUSA)의 동성애와 결혼정에 대한 행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이다.

미국장로교 산하 400여 한인교회를 대표하는 296명의 참가자들은, 광복 7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디아스포라한인교회의 사명을 숙지하면서 교단내에서 한인교회의 역할에 대해 일체감을 가지고 함께 행동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교단내에서 격상된 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으로 인해, 한인교회총회는 미국장로교단 내에서 갈수록 주목을 받으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및 동성결혼에 관하여 해당 당회와 담임목사에게 자유로운 재량권을 주는 교단법의 양면성에 의거하여, 미국장로교한인교회들은 동성안수와 동성결혼집례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장로교단은 보수적, 중도적,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다양한 신앙 그룹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장로교단은 전통적으로 문화현상과 사회정의에 민감한 의식을 가지고 성서에 기초한 신앙과 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미국장로교단의 포용성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동시에 교단내 한인교회들은 성서적

전승에 근거한 신앙적 입장을 확고히 할 것을 재천명했습니다.

미국장로교단산하 400여 한인교회 가운데 타교단으로 이적을 고려하는 교회는 열교회 미만이며, 절대 다수의 교회들은 개교회의 안정적 성장과 교단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교단내 복음주의적 그룹들과 연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교단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미국장로교단은 130년 전 어두운 한국 땅에 복음으로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연세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숭실대학교, 새문안교회, 정신여고, 계명대학교 및 동산의료원, 전주예수병원 등을 세워주신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기독교장로회총회, 해외한인장로회총회, 재일대한기독교회총회와 함께 선교적 협력관계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장로교한인교회총회는 이러한 선교적 동반관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합니다. 혼란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교단간의 결속된 연대를 통해 힘을 합칠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장로교한인교회 전국 총회장 배현찬 목사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버림중학교 / 토요새벽-17외버몬트 크니
주중새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섬기며, 선교영향을 증진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박성도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LA 선교교회

내 지경을 넓히라, 믿음으로 성령하고, 사랑으로 하나되며, 소망중에 기뻐하라

35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435-0380, (213)435-0094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빙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 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주일 오후 4시 엘리아 김 담임목사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모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한기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6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서건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00 E모 오후 1:00
한어침년부 오후 7:30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사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모예배 오후 2:00 박학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침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 6th St., LA, CA 90020
T.(213)383-2600, (213)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김광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화요일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성령공부 오후 7:30 (화) 오전 6:0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9:00 중 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김영달 담임목사
E모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찬양(매주목요일) 오후 7시(3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신현호 담임목사
성령공부: 주일 오전 10:30 토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모예배 오전 10:00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9: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월서와 월튼 옆) T.(213)380-0071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정장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T.(310)500-4737 / olympic-church.org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령 (정부 배넛 및 전분)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요한 선교교회

gkal44@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류종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323)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인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모 1부예배 오전 9:30 민중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E모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회

플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범수 치과 Bryan Kim D.M.D.
General & Cosmetic Dentistry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종교동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김성민** 담임목사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965-3443 / F.(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화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월-금)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훈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청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10:00-11: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최승묵** 담임목사
오전 11시(본성전) 매일O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주일예배 오전 11:45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정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영어예배 오후 2:00 종교동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김준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한이침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 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 2부 11:00 **권준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n.com

1부예배 오전 8:00 장어우예배 오전 10:00 **김바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0:00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EM예배 오전 10:00(장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오전 2:00(장년) 금요예배 오후 8:00
KM예배 오후 8:00(장년) 금요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수요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정영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www.dreamumc.com
EM 1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11:00

드림교회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교사예배(주일) 오전 9:45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벤추라카운터장로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예수의 심장으로 섬기는 교회' (빌1:8)
금요성경예배 - 저녁 7:45 목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목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유초등부(주일) 오전 11:00 구역모임 매월 1회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한글학교(토) 오전 10:30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곽락근** 담임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비전채플 Vision Chapel** **최혁** 담임목사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수요영성예배 - 저녁 7:45 목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12631 E. Imperial Hwy, #F134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Santa Fe Springs, CA 9067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최호년** 담임목사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전 6:30(토)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십)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오후 12:00(본당)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ECA 총회에서 한인포함14명 안수받아

한인은 조슈아 노 목사와 김성득 목사 등



ECA 총회가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신시내티에서 열렸다.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신시내티에서 ECA(Evangelical Church Alliance) 총회가 열렸다. 총회원들을 세미나에서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위기감을 공유하며 교회가 더욱 더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 이단에 대한 설명과 그 대처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특별히 군목들의 모임이 별도로 있었는데 미 육군군목학교 관계자가 참석해 군대내의 영적 도전에 대해 설명하며 군목들의 영성을 강조했다. 또 군목들이 서로를 위해, 각자의 사역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도 했다. 총회 둘째날에는 안수 인터뷰에서 군목 4명을 포함해 총 14명이 통과됐다. 총 47명이 안수를 신청했으며 사역 및 신학에 대한 검증, 교육과 인성에 대한 검증, 소명에 대한 검증 등 까다로운 절차가 진행됐다. 한인은 조슈아 노 목사(올림픽장로교회)와 김성득 목사 등이 안수를 받았다. ECA에서 안수를 받게 되면 매년 사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역이 중단될 시 안수증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사역이 중단되었기에 목사 호칭을 사용할 수도 없게 된다. ECA 안수나 군목 지원에 자세한 설명은 www.ecainternational.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지역 한인 코디네이터인 케니 김 목사에게 문의 (310-502-9999)해도 된다.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 약 1억 명

교황청 기관지 보고서 발표, 신앙 때문에 박해 표적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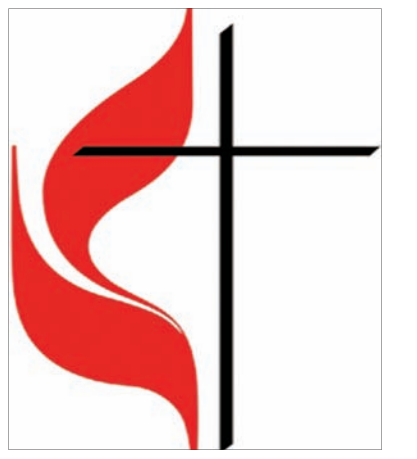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명이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박해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최근 로마교황청 기관지인 '로세르바토레 로마노'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세계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전체주의 정권 아래 박해·차별·폭력에 노출돼 있다. 이 매체는 "북한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경우, 5~7만 명 가량의 기독교인들이 수용소에 갇혀 지내는 등 다른 지역 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슬람국가(IS)의 지배 아래 폭력과 적대감을 견디고 있는 중동·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지난 수 년 동안, 이슬람교로의 개종과 IS의 근본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거부할 경우 참수나 화형을 당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기독교인 박해와 관련된 각 나라의 경제적·문화적·지리적 변수들을 고려하여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원인을 조망하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한다"고 작성 취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 1월 오픈도어선교회가 공개한

기독교 박해국가순위도,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수를 대략 1억 명으로 추산했다. 박해의 형태는 정부의 핍박에서부터 테러 단체의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북한은 13년 동안 박해국가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은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수용소에 끌려간다. 오픈도어선교회 데이비드 커리(David Curry) 대표는 지난 1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포함한 상당 국가에서 박해의 원인은 '독재주의 편협성'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박해의 주요 특징은 '이슬람 극단주의'였다. 박해 상위 50개국 중 40개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는 기독교 박해의 주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커리 대표는 특히 IS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올해 기독교인 박해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전 세계 지도자들은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들이 종교적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美 감리교, 새 찬송가에 '성 중립적' 단어 사용 고려

보수주의자들의 반발 예상돼

미 연합감리교회(이하 UMC)가 발행을 앞둔 새 찬송가에 성 중립적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UMC는 오는 2016년 정기총회에서 새 찬송가 발행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찬송가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버전으로 제작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일부 목회자들은 성 중립적 단어 사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UMC 출판훈련사역부는 지난 7월 31일 이사회에서 새 찬송가 발행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는 것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이 2016년 통과되면 2020년 정기총회에서 새 찬송가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출판훈련사역부 웹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가사에 있어서 다소 변화가 생길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며, 성(性)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니시다. 하지만 약 2,000년 간의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은 남성적 용어로 언급되었고, 이것이 일반적인 이미지가 되었는데, 이러한 관행은 변화될 수 있고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성경적



美감리교단 마크

이미지는 우리의 예배와 의식, 그리고 찬송가에 편재해 있으며, 여성적 이미지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마리아의 아들이신 예수는 남성적이지만, 예수에게 남성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예배에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오는 그(he)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는 말 대신 '주의 이름으로 나아오는 자(one)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이런 취지에서 찬송가가 개정된다면 다수의 가사가 변경되고, 이는 보수주의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다"도 말했다.

신을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사역을?

캐나다연합교회 무신론자 사역자, 사역 자격 지키려 교단 상대 투쟁



캐나다연합교회 무신론자 사역자 그레타 보스파 (사진 출처 = 크리스천포스트)

캐나다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anada)의 무신론자 사역자에 대해 교단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사역자가 자신의 사역 자격을 지키기 위해 교단을 상대로 투쟁에 나섰다.

UCC의 총무인 노라 샌더스(Nora Sanders)는 토론토의 웨스트힐 연합교회(West Hill United Church)의 담임목사인 그레타 보스파(Gretta Vosper)의 사역의 유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지난 5월 밝히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보스파는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에 보낸 이메일에서 “총무와 토론토 연회로부터 서류가 도착했으며, 오는 9월 18일까지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스파는 지난 2001년 자신이 다시 무신론자가 됐다고 커밍아웃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기독교 교단인 UCC는 자신의 무신론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토론토 연회의 총무 데이비드 알렌(David Allen) 목사는 지난 5월 크리스천포스트에 “사역자 자격 조사는 사역자의 사역 유효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공식적인 절차”라면서 “5명으로 이뤄진 팀이 보스파와 인터뷰하고, 40인 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0인 위원회는 보고내용에 대한 의견을 토론토 연회에 보고하게 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알렌 목사는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에 현재의 조사 상황에 대해 전하면서 “보스파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며, 공식적인 조사 절차가 모두 진행된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스파는 UCC 총무와 토론토 연회의 조사 결정에 대해 항소했는데, 두 가지 항소조건은 모두 오는 가을 재판국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IS, 시리아 기독교인 수백 가정 납치

사전에 목록 확보하는 등 치밀히 계획

이슬람국가(IS)가 시리아 기독교인 가족들을 수백 명 납치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에 있는 시리아인권관측소(Syrian Observatory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IS는 지난 6일 시리아 북부 흡스 지역의 알 라리아타인의 한 마을을 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IS가 정부군과의 교전 끝에, 한 때 많은 기독교인들과 소수종교인들의 고향이었던 이 마을을 점수하자, 많은 이들이 피난길에 올랐다.

시리아인권관측소는 기독교인과 시아과 무슬림을 포함해 대략 230여 명이 IS에 의해 붙잡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45명은 여성, 19명은 아이들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IS는 이번 납치를 위해 사전에 기독교인 가정 목록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치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시리아가톨릭 수도원 출신이었다.

시리아-이라크 기독교인들을 위한 단체인 어디맨드포액션(A Demand for Action) 설립자인 누리 키노(Nuri Kino)는 미국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정교회와 시리아가톨릭교회에 속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납치됐다.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이나나 야키코(Diana Yaqco) 대변인은 매일온라인과의 인터뷰에서 “약 300가정이 도망칠 수 있었다. 그러나 IS가 소수종교인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고, 남성들을 바로 살해하기 시작한 이후, 납치된 이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성노예, 대량 살상, 참수 등이라고 전했다.

키노는 약 1,500명의 사람들이 흡스, 하마, 엔비르스 대교구의 본부로 피난해 왔다고 밝혔다. 대교구는 성명서에서 “현재 100가정 넘게 납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IS가 가정들을 납치한 후, 이들의 석방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 약 200가정이 석방됐으며, 나머지 100가정은 여전히 갇혀 있다. 본부로 떠나 온, 남은 가족들에게 필요한 옷가지, 음식, 휴식처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월에는 시리아 야곱 무라드 신부와 교인인 보트로스 한나가, 라리아타인 소재의 한 가톨릭교회에서 팔미라의 난민들을 위한 자원을 마련하던 중 복면을 한 남성들에 의해 납치됐다.

시리아인권관측소의 라미 압둘라만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IS가 마을을 점령한 것은 이들의 전략적 승리로 보인다. 왜냐하면 팔미라의 영역을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쿠스의 칼라문 지역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NCCJ ‘평화 위해 스스로 이웃돼야’

‘패전 70년’ 맞아 담화 발표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의장 코바시 코우이치 목사)가 ‘패전 70년’을 맞아 담화를 7일 공식 발표, “주님께서 이끄시는 평화의 길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 스스로가 이웃이 되고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바시 의장은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이시는 것은, 주변 나라들에게 전쟁의 죄를 진실하게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의 주관자인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해 주변 나라들과 이웃이 되는 길”이라며 “주변국에 압력을 가해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닌, (일본) 스스로부터 이웃이 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평화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힘과 부(富)가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며 “그에 따라 인간, 민족, 나라에 대한 가치 평가까지 치우쳐 차별의 울타리가 만들

어지고 있다. 먼저는 사회 속에서 힘과 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 국적과 민족의 차별을 (일본) 스스로가 철폐하고 이웃이 된다는 것을 국가의 기본 자세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비와 전쟁에 소비하는 힘과 부의 극히 일부만 사용해도 이는 실현될 수 있다”며 “세계적인 규모로 군비를 폐기하고 얻을 수 있는 힘과 부가, 자국 시장과 자원 확보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의 땅에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세계 전체의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이 이끄시는 평화로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마가복음 1:15, 마태복음 16:24, 누가복음 19:40을 인용한 뒤, “마지막까지 외치는 돌이 되자”고 호소했다.

강성현 기자

O.C./앨버틴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주일목사예배 오후 2: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월요 성경학교 오후 7:30 금요침야예배 오후 8:00
최요 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일 E.M.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평양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양대학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2:30
2부예배 오후 12: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설거주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후 2:3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18523 Arline Ave., Artesia, CA 90701
T. (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 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여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 (562) 691-0691 F. (562) 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 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 #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새벽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허귀암 담임목사

놀워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562) 802-4959 C. (714) 308-703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7:3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영어예배(GLMC) 주일 오후 12: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박일룡 담임목사

로렘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THEM.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 새벽 헬스바 기도회 새벽 6: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렐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5:30 AM (화-금) 6:30 AM (토)
11:45 AM Adult Service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일: 7:20 PM 성경 66권 특별성경공부

이승철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고 온전하신 분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gmail.com

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복 목사 회장 주혁모 목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리세열 목사 사무간사 홍지윤 전도사

성경적목회연합회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누구든지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 (714) 252-9191

1부예배 오전 9:00 P-lander(Korean)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 (1-6) 오전 11:00
토요 연합 새벽기도회 오전 Youth (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앨버틴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 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홍성준 담임목사

앨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양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민 담임목사

앨버틴 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예배 오후 12:30 김용철 담임목사
교육부예배 오후 12:30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교수

앨버틴 중앙교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1842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714) 309-7551
Pastoryckim@yahoo.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기회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 11:50 김민재 담임목사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양대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수요일 오전 6:00

염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본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성경이 예배: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日, 과거사 직시하고 재무장 시도 중단하라”

광복 70주년 맞아 각계 인사 33인 시국선언



각계 33인 중 행사에 참석한 이들이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일기독교의원연맹(대표회장 김영진)과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상임대표 김영진)가 ‘해방 70주년 국외기념식 및 각계 인사 33인 시국선언’을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귀빈식당에서 개최했다.

김영진 대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복과 해방 70주년을 맞았지만 이를 마냥 기뻐만 할 수는 없다. 마지막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하며 각계 지도자 33인이 시국선언을 하게 됐다”며 “우리의 이 작은 노력이, 일본으로 하여금 바른 역사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광복 제70주년에 즈음하여 일본 아베정권의 반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과 올바른 역사 청산을 촉구하는 33인 시국선언문’은, 33인 중 이

날 참석한 전용재 감독회장(기감), 김영주 총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용태 총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박해용 회장(4.19선교회)이 낭독했다.

이들은 “8.15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는 우리는,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안보법 제·개정을 통해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아베전쟁법’(안전보장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일본 정부는 아베 정권 출범 이후 무라야마 선언의 백지화 시도, 고노 담화의 재검증 및 일제치하 강제징집 한국인 수용시설의 유네스코 등재,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 부인 등 졸권 역사를 부정하는 행보를 가속화해왔던 것이 사실”이

라며 “양국의 진정한 화해와 상생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 외면과 군사적 재무장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향해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 △위안부 할머니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다 진전된 자세 △안전보장법안의 강행 처리 즉각 중단 △‘아베 담화’가 고노 및 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 내각의 담화 내용을 계승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성찰과 책임 있는 자세를 담은 것 등을 촉구했다.

시국선언에 앞서 장상 박사(전 국무총리 서리), 전병규·최성규·황용대 목사가 기념사를 전했고, 참석자들이 함께 축하 케이크를 자르는 순서도 마련됐다. 김진영 기자

한교연 ‘종교인 과세’ 입장 발표

“강제 아닌 자율로”



양병희 목사(한교연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이하 한교연)이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종교인 소득 과세 방안을 담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한교연은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에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한 것은 종교계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반영해 준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성직 활동은 섬김이고 봉사이지 근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성직자의 활동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 시하는 정부의 세법안에 반대해 왔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이 아닌 종교계와의 대화를 통한 간격을 좁히려 노력해 준데 대해서는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문제는 정부가 종교계와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말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려다가 본 한국교회연합을 비롯한 종교계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1년간 유예 됐다”고 밝히고, “그것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정부 주도의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납세를 위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가 성의를 보여준 만큼 이제는 종교계가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줄 안다”고 했다.

한교연은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간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세율을 일괄방식이 아닌

변경안(차등방식)으로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는 어디까지나 강제가 아닌 자율적인 납세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만일 이에 대한 강제와 처벌조항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정부가 내세우는 종교인 과세의 본래 취지가 호도되고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고 했다.

때문에 “종교인 모두가 자발적인 납세에 동참할 때까지 정부가 법제화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정부가 한국교회 성직자 중 80%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포함될 정도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고 하고, “종교인과세가 시행된다면 어려운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에게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돌아가는 지원과 차별없는 지원이 시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 했다.

“민족 위해 헌신했던 기독교 지도자들 기억해야”

한목협, 기독교 민족지도자 후손·관계자 초청만찬 마련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대표회장 이경원 목사), 해방·분단 70년 기념행사준비위원회, 한국고등신학연구원 등이 해방·분단 70년을 맞아 ‘기독교 민족지도자들의 후손 및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10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초청 만찬’을 열었다.

주최 측은 “해방과 분단을 같이 기억해야 하는 기막힌 우리의 한국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지난 100년의 한국역사에서 민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많이 보내주셨다”며 “해방·분단 70년을 맞아 광복과 분단을 주제로 한국 역사와 사회를 되돌아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그동안 나라와 교회를 위해 애써오신 민족지도자 후손들을 모시고 위로의 시간을 갖기 위해 조촐한 만찬을

준비했다”고 이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1부 순서는 이성구 목사(한목협 상임총무)의 사회로 시작되어 손인웅 목사(한목협 명예회장)의 개회인사, 한안섭 목사(한목협 상임회장)의 개회기도, 정운찬 전 총리(호랑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이만열 박사(김교신기념사업회)·박경조 주교(한목협 상임회장)의 축사,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이후 오정호 목사(한목협 홍보위원장)의 기도로 기념만찬이 시작됐고, 2부는 김재현 원장의 사회로 축하공연과 함께 이종찬 전 국회의원(이회영기념사업회, 이회영 선생의 손자)·정진태 회장(김상욱기념사업회)이 인사를 전했다.

이종찬 전 의원은 “한국 독립운동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했고 이분들은 피나는 투쟁을 했다. 3.1 독립운동 당시도 기독교 지도자들

이 주도해 이 운동을 이끌었고, 3.1 운동은 독립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백성의 나라로 바뀐 사건이었다. 대한제국에서 1919년을 기점으로 해서 백성의 나라로 바뀌게 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고 전했고 “이렇게 분에 넘치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것과 후손의 한 사람을 한대해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며 감사를 표했다.

정진태 회장은 “유난히도 무더운 삼복 더위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더욱 감사하다. 애국 선열들의 희생으로 광복의 기쁨이 찾아 왔지만, 또다시 분단된 채로 광복 70년이 됐다. 앞으로 온 국민들에게 독립운동가들을 널리 알려 국가관과 애국심을 고양하도록 해야 한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후 축하공연과 광고 및 정근두 목사(울산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이동운 기자

예장 고신-고려, 교단 통합 전격 합의

신사참배와 공산주의에 맞선 순교 신앙을 한 뿌리로 가진 예장 고신(총회장 김철봉 목사)과 예장 고려(총회장 천환 목사)가 최근 교단 통합에 전격 합의, 오는 9월 제 65회 총회 시에 결의해 통합을 할 방침이다.

각각 총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양측 통합추진위원회는 5일 통합 합의문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통합 시 양 총회의 모든 역사(총회 회기, 교회 역사, 신학교 졸업 이수 등)는 병합되며, 고려총회의 노회는 그대로 유지하고 통합 총회의 행정 개편과 함께 지역노회로 편성한다.

또 양 총회 소속의 목사·선교사·교역자의 신분은 한법대로 보장하며, 향존직을 비롯한 교회의 직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교회(당)는 가급적 유지재단 가입을 권장하고, 목회자에게 예금(연금)제도 혜택 및 계속수학의 기회 등은 양 총회 공히 동등하게 제공한다.

고려신학교 신학원(M.Div 과정)은

고려신학대학원의 역사와 병합하며, 졸업자의 학적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관리하고, 재학생은 신입생으로 입학(특례)하게 한다. 고려신학교 여자신학원은 해 노회에서 운영한다.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와 추후 필요한 사항은 양 총회 통합위원회가 합의해서 처리한다.

이들은 “고신총회와 고려총회는 성경대로 믿고 고백하며 가르치고 살아가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따라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에 순교로 대처하였으나, 안타깝게도 1976년 제 26회 총회 시에 ‘신자 간의 사회법정 소송에 대한 이견’으로 분열됐다”며 “그러나 분열의 원인이 된 사회법정 소송 문제는 고린도전서 6장 1-10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도 간의 사회법정 소송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라는 원리가 옳은 줄로 믿고, 고신총회와 고려총회는 통합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류재광 기자

제 9기 수기치료 의료 선교사 수강생 모집

수기치료 의료 선교사 8기 생 교육을 무사히 완료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사명으로 시작한 의료 선교사 육성 사역은 축복 가운데 9기 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수기치료 의료선교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본 재단에서만 시행하는 교육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손 하나만으로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완벽한 치료술을 교육하며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수료가 끝난 의료 선교사님들은 선교의 불모지에서 치료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게 되며 이웃을 위한 의료봉사에 임하시게 됩니다.

모집 안내

- 응모 자격:** 하나님을 영접하신 분으로 선교의 사명이 투철하신 남녀 성도 분
- 모집 대상:**
 - 목회자 또는 선교사 (해외파송 희망 선교사)
 - 평신도로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시고 의료선교사로서 사역을 원하시는 분
 - 수기 치료술을 배워 단기 선교나 의료 봉사를 원하시는 분
- 모집 인원:** LA 지역 남녀 20명 (교육의 향상을 위해 인원을 제한함을 양해 바랍니다)
- 교육 기간:** 총 20주 (매주 2회, 2시간 교육) LA지역 : 화요일, 목요일 교육(아침반, 저녁반)
- 교육 장소:** LA지역 2836 W. 8th St. #106, LA, CA 90005(금란 노인상조회 건물)

수료 후 특전:

- 선교사 수료증 및 자격증 수여, 파송 선교지 추천 및 재정 지원
- 부부가 수강 신청 시 한 분은 청강생으로 수강료 면제 합니다.

- 교육 내용:** 근육 통증 전문 치료술
 - 근육 교정학 : 통증을 전문 치료하는 의술.
 - 체형 교정학 : 변형된 체형을 교정하는 의술.
 - 척추 교정학 : 바른 척추를 만들어 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의술
 - 영양 물리학 : 식품의 영양과 인체의 영양 (자연식의 원리)

- 교육의 특성:** 수기치료 의료 선교사 교육은 약품이나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만을 사용하여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의술로서 한의학, 카이로 프랙틱, 근육전문 치료학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하여 완벽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술로서 단기간에 완숙된 의료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 개강 일자:** 2015년 8월 27일 (목요일)
- 접수 마감:** 2015년 8월 26일 (수요일)
- 접수처:** 세계 의료 선교사 육성 재단 213) 381-7273 213) 605-2928
- 교육 강사:** 박승부 장로 (Dr. Charlie Park) 수기치료의 세계적 권위자 전 국제 대체의학 전문대 학장



복음선 강변에서의 전도 진료 찬양과 율동으로 함께...



어린이 성경학교 어린이 음악학교

2015년 대만 선교대회 의의

중국 및 화교권 선교 전략적 관점

2015년 8월 18일 (화)부터 8월 21일 (금)까지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에서 있게 되는 “2015년 대만 선교대회”는 약 3,000여 명이 참석하는 의미 깊은 선교대회가 될 예정이다. 대만 현지의 약 200여 교회에서 모인 2,800여 명의 성도들과 해외에서 모인 약 200여 명의 한국인 성도들이 하나 되어, 대만의 복음화와 대만을 통한 중국 및 화교권 선교에의 헌신을 위한 귀한 은혜와 결단의 시간들이 될 예정이며, 필자도 강사 및 실무자로 참석하게 된다. 문소연 기자



개혁을 맞은 대만 신학교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
대만과 중국의 관계는 두 번의 국·공 합작 (1923-26, 1937-45)과 두 번의 국·공 내전 (1927-36, 1946-49)으로 크게 볼 수 있다. 1911년 손문(孫文)에 의한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청나라가 무너지고, 1912년 1월 1일에 난징(南京)을 임시 수도로 하여, 중화민국(中華民國, ROC, Republic of China)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원세개(袁世凱)가 임시 총통을 맡게 되었다.

이후, 1949년 10월 1일 모택동(毛澤東)에 의하여 북경 천안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PRC,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 수립되었다. 현재, 중국은 22개 성, 5개 자치구, 4개 직할시, 2개 특별행정자치구를 두고 있다.

대만은 대만성으로 보고 있으나, 독립된 국가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 대만은 1992년에 조성된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컨센서스(合意)에 의하여, 3불(三不)정책을 유지하고 있다(不統, 不獨, 不武: 통일이나 독립을 추구하지 않으며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2. 중국인 디아스포라 화교 현황
전 세계에 흩어진 중국인 디아스포라 화교는 대만을 포함하여, 약 7천만 명으로 본다.

3. 대만선교대회의 중요성(중국 및 화교권 선교 전략적 관점)
대만 선교대회의 중요성은 중국 및 화교권 선교에 대한 전략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약 15억 인구(2015년 통계로는 약 13억7천만 명)를 향한 선교(전체 인구 중 약 5% 정도를 기독교인 <삼자교회 및 지하교회 포함>으로 추산 함)과 대만(전체 인구 약 2,400만 명 중 약 5% 정도를 기독교인으로 추산 함)을 포함한 약 7천만 명(이 중 5-10% 정도를 기독교인으로 추산)을 향한 전도 및 선교에 대한 교회의 역할이 언어, 문화적 및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즉, 대만 교회들과 성도들이 선교적인 삶과 사역이 될 때, 대만 복음화와 중국 및 전 세계 화교권 복음화의 선타 역할을 하게 되리라 본다. 그리고 이들 중화권 교회들과 성도들이 더 나아가 세계선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 중화권 교회들과 성도들이 복음전파에 앞장서길 기도한다.

대만 선교에 대한 간증과 대만 은혜신학교 현황

1. 대만 선교에 대한 간증
대만 선교의 핵심이 된, 대만 신학교의 시작은 주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었다. 2004년부터 1년 반 동안 그 당시 풀러 신학대학원을 다녔었던 빌레몬 천이라는 대만 학생이 필자에게 선교 인턴십을 받게 되었다.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미션 퍼스펙티브스 영어 원본으로, 일주일에 약 3시간 씩 강의를 해 주고, 본교회의 트레스 디아스를 받게 하였다.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한 빌레몬 천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왕 권사(대만의 대형 기업가)가 은혜한인교회를 방문 및 트레스 디아스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였다.

그 후, 대만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대만 교회 목회자 및 지도자 80여 명을, 자신이 비용을 지출하여서 미국 은혜교회에서 하는 GTD(Grac Tres Dias)를 받게 하였다. 이를 계기로, 대만 신학교가 왕 권사의 헌신에 의하여, 2007년 6월에 시작되게 되었다. 대만 신학교 건물의 구입과 모든 지출 경비 및 은혜한인

교회의 대만 선교사들의 모든 사역비를 왕 권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다.

현재, 왕 권사는 GMI 대만선교 후원회장으로, 대만 신학교 사역 및 대만 현지 교회들 및 목회자들을 초교파적으로 돕고 있다.

2. 대만 은혜신학교 현황
대만 은혜신학교는 2년 과정으로, 1년에 6회, 매 회 2주간 씩 소집 강의를 함으로써, 목회와 공부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강사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대만의 강사들이 1주일 단위로 강의를 하고, 2주간 중 주중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영성을 더욱 깊어지도록 하고 있다. 주말에는 자신의 교회에서 사역을 함으로, 이론과 사역을 접목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2007년 6월 4일, 제1기 신학생 96명의 입학과 함께 시작된 대만 은혜신학교는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현재 775명 입학 547명의 졸업현황을 보이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3. 대만선교대회의 중요성(중국 및 화교권 선교 전략적 관점)
1) 대만 은혜신학교 커리큘럼
대만 은혜신학교는 1년에 6회, 2주씩의 소집 강의를 받게 되며, 2년간 12번의 소집 강의를 마쳐야지만, 졸업이 가능하다. 강의는 6월, 8월, 10월, 12월, 그 다음해 2월과 4월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는 결국 매 6주마다 2주간의 소집 강의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

1년차 강의는 6월에 율법과 복음, 바스케 오퍼레이션(Basket Operation: Basket Operation)이란 목회를 돕는 하나의 도구로서 마치 바스켓(바구니)과 같은 원리를 의미한다. 개관, 산상기도회가 있게 된다. 8월에는 은혜의 만남, 성령론 과목이 있게 되며, 10월에는 교회사, 전도학, 일대일 훈련 과목이 있게 된다. 10월에는 교회사, 전도학, 일대일 훈련 과목이 있게 되며, 12월에는 성경통독, 은혜와 자유의 과목이 있게 된다. 그 다음해의 2월에는 조직신학, 은사개발, 부모자 세미나 과목이 있게 되며, 4월에는 성경적 리더십, 창조과학 과목이 있게 된다.

2년 차 강의는 6월에 성경해석학, 중보기도 과목이 있게 되고, 8월에 상담학, 로마서 과목이 있게 된다.

10월에는 요한복음, 사도행전 과목이 있게 되며, 12월에는 선지서, 성령론, 창세기 강해 과목이 있게 된다. 그 다음해 2월에는 모세오경, 성막론 과목이 있게 되며, 4월에는 설교학, 옥중서신, 목회학, 목회서신 과목이 있게 된다.

이러한 과목들은 실제로 목회를 하는 대만 목회자들과 대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2주간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새벽기도와 오전과 오후의 강의 교육, 그리고 저녁 집회를 통하여 영적인 성숙과, 목회적인 지식을 쌓으면서, 서로간의 교제와 친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즉, 대만 은혜신학교의 목표는 대만 교회의 부흥과 자립, 자치, 자전을 통하여, 중국과 인근의 중국어 사용자 권 나라들에 대한 선교의 감당과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자발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 볼 수 있다.

2) 대만 은혜 신학교의 비전과 기도제목
대만 선교는 엘리자베스 왕 권사라는 한 여성 지도자의 비전과 헌신이 은혜한인교회라는 좋은 선교 목회적 모델 교회와 귀한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어, 기도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루어 가고 있는 아름다운 협력선교의 좋은 모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만 신학교의 비전은 대만 전체 인구 약 2,400만 명 가운데 3.8% 정도(지금은 약 5%) 밖에 되지 않는 개신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도록, 대만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된 목회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드는 것에 있다. 또 대만 신학교와 같은 목회자 및 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들을, 대만 목회자들에 의하여 중국과 동남아시아 및 한태평양 지역에 세워져 지도자 양성 및 교회 개척을 통한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세계 선교 감당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데 있다.



GMI 선교팀장 양정철 목사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원)

가을학기 학생모집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5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

1.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2. 신학 대학원
 - 1) M.Div.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과정 - 3년 / 56학점
3. 일반 대학교
 -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집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4. 홈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홈스쿨링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 1)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 설립 첫 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미주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본 학교는 분기별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5년 8월 31일(월) ~ 11월 6일
*겨울학기 개강일 : 2015년 11월 30일(월) ~ 2월 5일
*봄 학기 개강일 : 2016년 2월 15일(월) ~ 4월 22일
*여름학기 개강일 : 2016년 5월 16일(월) ~ 7월 22일

가을학기 등록 안내 : 2015년 8월 31일 까지 등록 마감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 (213)999-6884(대표전화), (213)235-6889, (714)588-1109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KONICA MINOLTA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opm Duplex	Dual Scan ADF 80opm Simplex	Emperor Driven!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	-------------------------------------	-------------------------------------	-------------------------------------	-------------------------------------	--------------------------------------	--------------------------------------	--------------------	--------------	---------------------------	-------------------

*1 *2



Simitri with Biomass *Optional : Fax & Finisher

이슬람과 기독교의 예수, 무엇이 다른가?

예수와 무함마드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창시자이며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종교 인물들이다. 전 세계 인구의 31.5%가 기독교인이며 23.2%가 무슬림이다. 따라서 전 세계 인구의 약 55%는 기독교와 이슬람 교인들이며, 이들은 예수와 무함마드를 가장 중요한 선지자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와 이슬람 교인들이 갖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이해'에는 차이가 있다. 성경에는 무함마드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으나, 꾸란에는 예수에 대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는 꾸란에서 '이사(Isa)로 불리는데, 25회 기록되어 있다. 또한 예수가 '메시아'(Al-Masih)로 11회, '마리아의 아들'(Son of Maryam)로 23회 언급되어 있다. 이를 합하면 꾸란에서 예수는 총 59회 언급되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에 대한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1. 예수의 탄생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교회의 두 가지 큰 줄기를 알아야만 한다. 미국 기독교는 크게 주류 개신교 교회들(Mainline Protestant)과 복음주의 개신교 교회들(Evangelical Protestant)로 나뉜다.

예를 들면, 주류 개신교회들은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그리스도 연합교(The United Church of Christ), 성공회(Episcopal Church) 등이 있고, 복음주의 개신교 교회들에는 남침례교회 총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 루터교 미זור리 총회(Lutheran Church - Missouri Synod) 등이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번에 동성애 성직자 인정과 동성애 결혼을 승인한 교단들이 바로 미국 기독교의 한 줄기인 주류 개신교회들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미국 주류 개신교회와 복음주의 개신교회의 차이는 무엇일까?

1. 예수의 신성

기독교에서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마 26:63-64).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향하여 아들이라고 불렀다. 복음서에서는 예수가 80번이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였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예수의 신성을 철저히 부인한다. 단지 마리아의 아들이며 선지자일 뿐이라고 한다. 꾸란에 의하면 예수 자신이 선

지자(알라의 종)일 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아기 때부터 분명하게 밝힌다.

“그러나 그녀는 그 애를 가리켰다. 이 때 모두가 요람 안에 있는 아기와 어떻게 말을 하란 말인가?라고 말하더라 이 때 그(예수)가 말하길 나는 알라의 종으로서 그분께서 내게 성서를 주시고 나를 예언자로 하셨습니다 말하더라”(꾸란 19:29-30)

따라서 이슬람에서 예수는 12만 4천 명의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일 뿐이다.

3. 예수의 기적

기독교에서 예수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부터 시작하여,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막 2:10-12). 이슬람에서도 예수는 흙으로 빛은 새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 모든 기적은 알라의 허락 아래 이루어졌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야... 너는 흙으로 나의 뜻에 따라 새의 모양을 빚어 그곳에 호흡을 하니 나의 뜻에 따라 새가 되었느니라 또한 장님과 문둥병을 치료하였으니 나의 뜻이었

고 또한 죽은 자를 살게 하니 이도 나의 뜻이었느니라”(꾸란 5:113)

꾸란에 따르면 예수는 장님과 문둥병 환자를 치료했으며 죽은 자도 살렸다.

4. 예수의 사역

기독교에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예수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보낸 사역을 이 땅에서 완성했다(요 17:1, 4).

그러나 이슬람에서 예수의 삶과 사역은 무함마드 뿐만 아니라, 앞서 왔던 선지자들의 그것보다 하등했다.

“그대 이전에도 우리(알라)는 선지자를 보내었고 그들에게 배우자를 주어 자녀를 갖게 했느니라”(꾸란 13:38)

예수 이전의 많은 선지자들에 비하여 예수는 배우자도 자녀도 없었다. 이 구절은 “예수는 단지 선지자였으며, 예수 이전의 많은 선지자들보다도 하등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킨다.

5. 예수 이후에 대한 예언

기독교에서 예수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이 올 것을 예언했다(요 14:16, 26). 이슬람에서



유해석 선교사
FIM국제선교회 대표

예수는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선지자였으며, 그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예수 뒤에 올 선지자, 즉 무함마드에 대해 알리기 위함이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실로 나는 너희에게 보내어진 선지자로서 내 앞에 온 구약과 내 후에 올 아흐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선지자의 복음을 확증하라...”(꾸란 61:6)

이 구절에서 ‘아흐맛’(Ahmad)은 ‘무함마드’(Muhammad)와 동일한 어근이다.

따라서 이슬람에서 예수는 무함마드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완성할 무함마드의 탄생을 예언했다.

전 세계 인구의 31.5% 기독교인, 23.2% 무슬림 기독교와 이슬람 교인들의 ‘예수’ 이해는 현저히 달라 예수의 탄생, 기적, 사역, 죽음, 부활, 권위, 재림 등 해석에 큰 차이 보여

6. 예수의 죽음

기독교에서 예수는 죄의 완벽한 희생제물로서, 구약의 예언처럼 십자가에서 죽었다. 기독교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의 죄를 그가 짊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예수는 강한 메시아적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죽음의 길을 예견했고, 자신의 죽음을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리자’의 의미로 간주했다(사 53:6, 행 17:3)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에 대하여 전면 부정한다. 누군가 그 장소에서 예수 대신 죽었다고 말할 뿐이다.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니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라”(꾸란 4:157)

7. 예수의 부활

기독교에서 예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전 15:3-4). 그러나 이슬람에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따라서 이슬람에서 예수의 부활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예수는 살아서 승천했다(꾸란 3:55). 엘리야가 알라의 권능에 의하여 하늘로 승천하였던 것처럼, 알라가 예수를 천국으로 올리셨다는

것이다. “알라께서 그(예수)를 오르게 하셨으니 이는 알라는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니라.”(꾸란 4:158)

8. 예수의 권위

기독교에서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는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벧전 3:22) 그러나 이슬람에서 예수는 통치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다른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일 뿐이다. 오직 알라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9. 예수의 중보

기독교에서 예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었다(히 7:24-25). 이슬람에서 예수는 중보자가 되지 못한다. 중보는 알라의 단독 권위이다.

“알라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옛세 동안에 창조하신 후 권좌에 오르셨으니 그분이 아니면 너희에게 보호자도 중재자도 없도다 너희는 이를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뇨”(꾸란 32:7)

또한 예수는 무함마드에게 중재를 위임했다.

“알라의 사도(무함마드)는 말했다. 부활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모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중재하시는 주께 구하자라고 말하면서 그(예수)에게 갈 것이다. 그 때 그(예수)는 나는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니 무함마드에게 가 보라고 말할 것이다.”(부카리 하디스 8:50)

10. 예수의 재림

기독교에서 예수는 영원히 통치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다(계 1:5, 7). 이슬람에서도 “예수는 재림할 것이다. 꾸란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 예수 또한 죽음이 라는 과정을 통과하여야 한다(꾸란 19:33). 그래서 재림할 것이며, 그 후에 40년 동안 살면서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모두 이슬람을 믿게 할 것이고, 십자가를 부순다”고 한다.

“나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그분에 의해 마리아의 아들(예수)은 곧 너희들(무슬림) 가운데 공정한 심판자로 올 것이다. 그는 십자가를 부수고 돼지를 죽일 것이다”(부카리 하디스 3:425)

11. 예수의 심판

기독교에서 예수가 다시 오면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다(살후 1:7-8). 이슬람에서 예수는 알라 가까이 있는 자들 가운데 한 분인 것은 확실하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알라께서 너에게 말씀으로 복을 주시니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의 이름은 메시아 예수이니라 그는 현세와 내세에서 영광이 있으며 알라 가까이 있는 자들 가운데 한 분이니라”(꾸란 3:45) 그러나 예수는 꾸란의 법으로 사람들을 심판한다.

“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마리아의 아들이 너희 가운데 내려가서 성서의 법이 아니라 꾸란의 법에 의하여 사람들을 심판할 때 너는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인가?”(부카리 하디스 4:658) 이슬람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가 누구이며, 그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이다. 이슬람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의 신성과, 그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왔으며, 그의 죽음이 죄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를 채웠다고 가르친다(골 1:15-23). 그러나 이슬람은 예수가 단지 선지자일 뿐이며(꾸란 5:72-75), 알라가 아담처럼 예수를 만들었다고 진술한다. 심지어 꾸란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말한다.(꾸란 4:157) 성경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기록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가르친다. 인간의 오염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요 3:16).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원죄없이 태어나기에 인간은 선하다고 가르친다. 구원은 알라에 대한 믿음과 선한 행동에 의하여 알라 앞에서 그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슬람 남성과 여성은 구원받기 위해 알라가 그들을 받아들이 수 있도록 선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지만 그 내용은 다르다.

이슬람에서는 예수가 재림하여 꾸란의 법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이 세상의 유일한 종교로서 이슬람을 세운 후에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왕으로서 그리고 주로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계 20:11-15). 하나님처럼 예수는 그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fbmcopiers.com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상처, 딛고 서다

조동천 | 마음지기 | 3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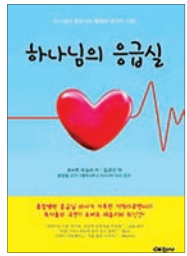
우리 인생을 뒤튼드는 열두 가지 감정을 하나 하나 분석하고, 그 감정의 미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소개한다. 저자는 우리가 여러 감정들의 복잡한 미로에서 더는 헤멜 필요가 없으며,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이 감정의 문제에 해답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한다. 관계의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에게 실제적 도움을 준다.



하나님의 응급실

로버트 레슬리 | 예찬사 | 240쪽

종합병원 응급실의 스토리를 40년 경력의 의사가 풀어낸다. 응급실 식구들과 환자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믿음과 신앙 이야기들이 담겼다. 무엇보다 '기적'에 대한 선입관이 완전히 깨져 버린다. 하나님의 기적은 창조의 한 부분이고, 창조의 목적에 자연스레 스며든 그 무엇이라는 저자의 주장. 존경을 다투며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절실한 곳이다.



에덴의 인문학

민정기 | 바다출판사 | 628쪽

현직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저자의 도발적인 주장. 창세기 1-2장 '에덴 이야기'를 신의 명령과 인간의 본능, 그리고 자유의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번뇌하는, 최초 인간의 성장통을 보여주는 '픽션'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전한 시행착오와 그릇된 판단 속에서도, 생각하고 번뇌하며 더 나은 길을 묻고 찾는 작업을 쉬지 않는' 한 인간의 성장통으로 바라볼 것을 주문한다.



어린이 관계행복

조현삼 · 장보영 | 생명의말씀사 | 128쪽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어린이판으로 각색했다. '관계를 행복하게 하는 7가지 비밀'을 7가지 에피소드로 풀어,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읽으며 관계 행복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학교나 가정에서 한 번쯤 겪을 법한 관계의 어려움들을 다루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어린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와 닿도록 풀어내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담았다.



REVIEW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리더가 됩시다”

목회 현장에서 발휘해야 할 ‘행복한 목회’ 리더십의 모든 것 알려줘

“지금까지 얘기된 모든 ‘영적 리더십’은 가라!”며 목회 리더십이 무엇인지와 그것을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를 멘토의 심정으로 알려주는 책이 출간됐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리더십으로 목회한 결과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자평하는 안태준 목사(인천 등대교회)의 책 <하나님의 인도, 행복한 목회>(세일사)가 그것이다.

1985년 1월 교회를 개척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만 전념해 온 안태준 목사. 그가 <하나님의 인도, 행복한 목회>를 펴낸 동기는 성역 30주년을 맞아 자신을 행복한 목회의 길로 이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리더십’에 관한 모든 것을 동료 목회자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모든 목회자들이 자신처럼 행복한 목회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안 목사는 자신은 개인성경묵상(Q.T)과 개인성경공부(P.B.S)를 통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받아 나름 행복했지만, 모든 사람들의 얼굴과 성품이 다르듯이 성도들의 믿음 형태도 정말로 다양해 많이 고민했다.

“처음에는 주님이 맡겨 주신 양들을 저의 믿음과 동일하게 만들려 애썼는데 따라와 주지 않아 낙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각자가 개인성경묵상(Q.T)과 개인성경공



하나님의 인도, 행복한 목회 안태준 | 세일사 |

부(P.B.S)를 하도록 지도하고 격려하는 리더십을 활용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개인성경공부를 꾸준히 하여 말

씀을 깨닫는 수준이 높아지고, 개인성경묵상을 통해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적용해 살아감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이 질적인 면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목회 30주년을 맞아서 이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제 책 <하나님의 인도, 행복한 목회>입니다.”

책의 부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리더십’에서 보여주듯, 이 책은 ‘하나님의 인도’를 목회자 자신이 먼저 받을 뿐 아니라,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인도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법 및 그 이론과 실재를 다뤘다.

안 목사가 말하는 ‘목회 리더십’이란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목회자로서의 리더십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적 리더십의 다른 말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개성, 그리고 은사 등을 개발해 주고 존중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도록 해 주는 리더십이다.

안 목사는 책 끝 부분에 개인성경묵상(Q.T)과 개인성경공부(P.B.S)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이를 적용한 결과에 대한 평가(실문지 조사) 결과를 수록해, 목회 리더십 구현에 대한 도전을 유도하고 있다.

김은애 기자

제20차
1일 신약통독

이번 휴일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루에 신약 27권 완독

Labor day 휴일을 맞이하여 **신약 27권 260장 전 절을 하루에 통독**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신약성경 전 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통째로 우리 마음에 담겨질 때에 놀라운 감동과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처럼 맞이하는 휴일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과 육이 새롭게 활력을 얻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5년 9월 7일(월) Labor day

장소 갓스윌연합교회 (담임 이희철목사)
904 E. D St., Ontario, CA 91764 (909)983-0994

참가비 30불 (식사 및 간식)





안성기 목사 이희철 목사 김동원 목사

교회 찾아오시는 길
(909)983-0994

904 E. D Street, Ontario, CA 91764
온타리오 공항 근처 (D Street과 Allyn Ave 사거리)



주최: 미주요한선교단 (대표 안성기 목사)

후원: 갓스윌연합교회 기독일보

“주여, 목회자인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목회자 포함 모든 교회 리더에게 꼭 필요한 뻘하지 않은 ‘사랑’

책 제목이 심상치 않다. 「Toughest people to love」. 책 제목은 ‘사랑에 강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여러 방면의 지도자, 특히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의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다면, 많은 리더가 사랑해야 한다는 뻘한 내용의 책일까?

그렇지 않다. 저자인 척 데그로트(Chuck DeGroat)는 목사인 동시에 심리학 박사이다. 적은 지금의 리더에게는 사랑을 위해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그에 뒤따르는 제대로 된 기술이 부족하기에,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랑에 약한 사람이 되었음을 지적하며 글을 연다. 즉 사랑에 강하다는 것은 마냥 상대방을 받아 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상대할 실제적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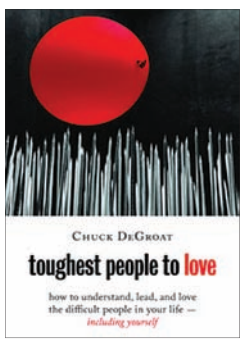
본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성경적 비전을 그려주는 서론적 내용을, 두 번째는 실제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difficult people)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세 번째는 실제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리더훈련을 각각 다루고 있다.

사람에 대해 알지 못하면, 사람을 이끌 수 없다. 리더는 창조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 성경은 매우 간단하게 말한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바로 그 원래 정체성과 목적의 회복이, 바로 리더가 모든 사람을 향해 가져야 할 비전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타락 이후, 우리는 죄성과 거룩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가 되었다.

그는 현대적 용어를 사용하여, 사람에게는 거짓 자아가 내재하며, 인간은 언제나 자신만의 보이지 않는 가방 속에 자신이 감추고 싶은 것을 넣어 둔다고 말한다. 리더는 이러한 현실의 인간상과, 성경에 나타난 거대 담론이 말하고자 하는 ‘창조-타락-회복’이라는 이상적 인간상을 비교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앞서 잠깐 설명했지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첫째 부류는 바로 ‘나를 미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적은 목회자가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바로 자기애인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이하 NPD), 경계성인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이하 BPD), 강박성인격장애(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이하 OCPD), 연기성인격장애(Histrionic Personality Disorder,



Toughest people to love
Chuck DeGroat
Wm.B. Eerdmans | 183쪽

이하 HPD)이다. NPD는 걸으로는 봉사도 열심히 하며 타인에게도 훌륭해 보이지만, 언제나 모든 그 행위는 오로지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기인하며,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한다. 이들은 ‘오로지 공동체 내에서만’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자신이 감추고픈 모습까지도 사랑해줄 수 있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

BPD의 특징은 산만하고 불안정하며, 감정 기복이 심하다. 이들은 목회자로 하여금 자주 무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들에게 목회자는 잠깐 구세주같은 존재였다가 이내 학대자처럼 여겨진다. 이들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논리적으로나 권위적으로 ‘이기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당연하지만 연민과 인내가 요구된다.

OCPD의 모토는 바로 ‘하나님처럼 완벽해야 한다’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그 기준을 적용한다. 매우 비판적이고, 모든 사람에게서 잘못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과는 정서적으로 친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리더는 자신의 삶을 나누고, 동시에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은혜의 메시지를 경험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HPD는 관심을 받기 위해 연기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어린 시절 수동적 부모에게서 관심을 얻기 위해 거짓 자아를 발전시킨 그들은, 언제나 연기한다. 따라서 리더는 그들의 실제 모습, 즉 무대에서 내려와 가면 벗은 진짜 얼굴을 볼 수 있는 눈을 지녀야 한다. 그들이 굳이 연기하지 않더라도 사랑받고 있음을 알도록 북돋우고 돌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연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안정감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부류는 중독된 사람들이다. 현대인들은 다 중독자이다. 단적인 예로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트위터 숫자나 직업이 무엇인지로 측정한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중독자들이 있다. 알코올, 음란, 자해, 폭식, 마약 등. 물론, 우리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지만, 몇 가지 이들을 사랑하기 위한 기술은 있다.

중독자들은 세상에서의 아픔을 잊기 위해 무엇에 집착한다. 참된 바람을 잃었기에 잘못된 것을 욕망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리의 참된 자아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필요하며, 이러한 중독 내지 건강하지 못한 집착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에서 온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중독은 스스로도 상처를 입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행위임도 인식시켜야 한다. 따라서 중독 행위에 뒤따르는 책임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인 적은 이 모든 방식을 실제 그의 내담자이자 성도의 사례로 제공한다. 인터넷 포르노 중독자, 자해하는 여성, 알코올 중독자, 신경성 거식증 환자 등. 자세한 내용을 다 옮길 순 없지만, 그들의 진정한 치료는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쳐, 하나님과 연합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참된 자아를 찾음으로써 가능하다.

셋째 부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몰지각한 상태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 단순한 우인(the simple fool), 자기소모적 우인(the self-consumed fool), 해로운 우인(the sinister fool)이 그것이다.

단순한 우인과 자기소모적 우인은 악의가 없음을 인지하고, 각자의 수준에 맞는 기술을 터득하여 사랑하며 풀어 주고 가르쳐 주면 된다. 그러나 해로운 우인은 이 오만, 맹목, 정서적 공감능력 결여의 정도가 지나치다. 이들을 가르치는 기준은 무엇인지 묻는다면, 적은 “I just know” 라고 대답할 것이며, 독자들에게 “당신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는 뒤이어 베드로와 유다를 각각 자기소모적 우인과 해로운 우인이라고 설명해 준다.

마지막 파트인 리더훈련 부분에서 적은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며,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했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법을 익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 어두운 밤을 지혜롭게 지나는 것이야말로 참된 리더가 될 수 있는 능력, 인내, 사랑, 지혜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183 쪽밖에 되지 않는 이 얇은 책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는 이루 다 말하기 힘들다. 필자는 본서를 읽으면서, 과연 나는 지금까지 교회의 사역자나 그리스도인 리더로서 정말 사람들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사랑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진규선 목사
서평가 · 편집자 · 번역자

‘십계명’ 누가 신경이나 쓰나?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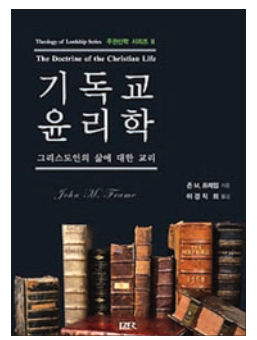
TEN 10
손글래딩
조이선교회 | 400쪽

‘십계명’은 성경에서의 상징성과 중요성에 비해, 요즘 별다른 영향력이나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는 듯하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구약 속이 ‘원칙들’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십계명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두 권의 책을 살펴 본다.

〈TEN 10〉 저자는 “십계명을 누가 신경이나 쓰나?”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공동체는 이 열 가지 계명이 가진 힘을 깨닫게 되면서 십계명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다. 십계명은 우리를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옥죄는 모든 것에 대처하게 해 준다”고 답한다.

책은 십계명이 단순한 규칙이나 자기 뜻을 다하지 않으면 관계를 끝내겠다는 조건부 협박, 형벌을 위한 사전 준비가 아니라, 잊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약이자, 살아가면서 실천하고자 하는 지침, 어두운 충동에 빠지지 않도록 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연령과 성별과 직업이 제각각인 사람들은 월요일 오전 카페에 모여 한 목사님과 함께 대화와 토론을 나누면서, 십계명이 일상 가운데 우리 내면과 행동, 그리고 사회 전체에 얼마나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금씩 깨닫게 된다. 대화자들도 존 목사까지 10명이다.

마지막 계명인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부터 시작해 첫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까지 한 계명씩 거꾸로 생각해 가면서 고리타분하다고 여겼던 ‘십계명’ 하나조차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기독교 윤리학
존 M. 프레임
P&R | 1,328쪽

〈기독교 윤리학〉저자는 이 책에서 현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실질적 윤리 문제들에 대해, ‘십계명’을 분류하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거짓 종교와 세속주의 등은 제5계명, 남녀와 인종, 노예제 등은 제6계명, 낙태와 전쟁, 안락사와 자살 등은 제6계명, 매춘과 동성애, 이혼과 재혼 등은 제7계명 등으로 나누며, 십계명을 ‘윤리적 삶에 대한 10가지 관점들’로 바라본다.

저자는 “개혁주의 전통은 하나님의 법, 즉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려 할 때 계속해서 십계명으로 돌아갔다”며 “윤리에 관해서라면 신약에도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대개 비체계적이고 옹고그름을 규정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을 주로 다루고 있기에, 윤리적 기준을 규정하는 데는 십계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한다.

이레로, 저자는 동성애 관련 성경 구절들의 해석 문제를 간단히 논하면서 “동성애는 성관계를 결혼의 일부만으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반한다”며 “그리고 하나님은 성적 기능을 결혼의 맥락에 제한하신다”고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다. 또 “고린도교회에 회개한 동성애자들이 있었던 것 같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성애자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나라의 완전한 복을 제공할 수 있다”며 “교회는 동성애자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신들의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써 이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대웅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알짜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0,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2015년 하반기 GMCC 선교 세미나

Mission Statement
Gmcc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명령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음세대를 품고 차세대 선교사를 양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상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문의
Gmcc 대표: 현병훈 장로 714)213-2882
간사: 안혜숙 213)819-0047 박노현 661)208-1602 gmccmission@gmail.com

강사
8 채동선 전도사 (8/15/22/29)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9 유영택 선교사 (12/19/26) (C국 선교사)
10 김대준 목사 (10/17/24/31) (LA 비전 교회)
11 유혁 목사 (14/21/28) (예수 전도단 나사렛 선교회)
12 류시하 목사 (12/19) (윌드미션 대학교)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참여자들의 예배로 드려집니다.

장소
LA 비전교회 세미나실
520 S Lafayette Park Place #200, Los Angeles CA 90057

일시
8월 ~ 12월
매월 매주 토요일
오전 8:00 ~ 11:30

진행되어지는 모든 세미나에 대한 수강료는 없습니다.

GMCC와 함께 지역준비를 완하시거나, 파송 및 지원을 찾고 계신 분들, 그리고 GMCC 교육과 훈련과정에서 도움을 주시길 원하시는 교수 및 선교사분들 환영합니다.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슈팅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시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참가하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 장외), 제작, 연속물인쇄 전문
www.junimedia.com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실교서디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합니다!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티슈 ◆ 폴렌 ◆
전도용품티슈 1,000set(\$180)
고급형광 필터슈! 1set에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엽서 ◆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에 구비되어 있으나 불시에 주문을 받으실시에는 더욱 다양한 종류의 맞춤형 제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에도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Special Price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인체공학적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뒷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 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www.winhyundaicarson.com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Tis the Season... For Kids to Dive Into the Gospel

BY RACHAEL LEE, CHRISTINE KIM

Summer could mean a host of different things to various people, but for most Christian parents, it means one thing: VBS. Just as churches routinely send off mission teams overseas each summer, most churches take a few days to a week of the three-month long vacation to focus wholly on sharing the gospel to children through creative and fun ways, including crafts, games, skits, and worship music and dance.

We asked a few pastors of churches of mostly Korean American congregants in Southern California on their VBS experiences this summer. What were some things that were particularly effective or helpful?

One aspect that the VBS directors of some churches thought was particularly helpful was that the whole church was united in its effort to help make VBS memorable and impactful. It wasn't seen as a separate event for children's ministry.

At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in Brea, CA, for example, not only were the pastoral staff supportive of VBS and praying for it, but they also made the decision to pray for VBS during the general worship services.

"That was special because it let the whole church know, it's not just this large fun event we put on," said Julie Pak from Living Hope, who has led VBS there for two years. "It's more than just a week of fun for the kids. It really is evangelistic work that we are doing in VBS, and that allows the whole church to be on board."

"I love seeing the church move as whole," said Pauline Byun, the children's ministry director of Crossway Community Church, which has campuses in Brea and Irvine. "VBS is a whole family, whole church event. We see this as an outreach to the community, and it's amazing to see the whole church being so excited about the next generation."

Church of Southland, located

in Anaheim, CA, had an application process and 'priority list' to make VBS more intentional. The application would ask the family whether they are members of another church, and if so, which church.

"We recognize that VBS is an affordable way to provide child care during the summer," said Pastor Daniel Kim, the education pastor at Church of Southland. "But we wanted to target a specific audience -- our own church kids, kids from small churches who don't have VBS, and kids from the surrounding community."

Having children within small groups and discussing the Bible lessons with their small group teachers also helped, several shared.

"Small groups are what make VBS special," said Pastor Daniel Kim. "Kids are able to interact and share with the leader and with each other, and the leader is able to make sure that all kids are prayed for, listened to, and that they all had an opportunity to share."

"We had tents set up, and the kids would go into the tent to do worship songs with their volunteer leaders, examine the Bible passage together, and ask lots of questions," said Pastor Grace Kim, the children's ministry pastor at Community Church on Holliston, located in Pasadena, CA. That small group context allowed for "a lot of discussion to engage and understand the message of the day."

She added that simply having VBS on an annual basis is helpful and effective in building a gospel foundation in the children.

"It's like a mini retreat for the kids," Pastor Grace Kim said. "Every year it comes around, and kids get super excited to learn about God and His Word."

"This is also missions -- it just happens to be that it's not in a foreign country," said Julie Pak. "Our people group is just different -- it's children. They see the world differently and have different needs. And it's our responsibility to share the gospel with them."



Churches all over Southern California hosted VBS, during which children were exposed to the gospel through creative and fun activities. (Photo courtesy of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Living Together": A Resource to Help Korean American Teens Explore Identity Through the Gospel Corresponding Resources for Parents and Facilitators Also Published

BY JUNHYEONG KIM

G2G (Generation to Generation) Christian Education Center, a Korean Christian think tank based in the U.S., recently released "Living Together," the second of a series of curricula designed to help Kore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understand their identity and culture through the lens of the gospel and theological truths.

The resource, designed for students in 11th grade, explores both theological and cultural issues, such as grace, baptism, dating, church splits, and time management. A separate facilitator's guide for the book was also published to help leaders use the material in a small group setting.

To allow the discussion to go even further and beyond the church setting, a parent resource in Korean to go hand in hand with Living Together was also released, called "My Child, My Friend," and specifically explores the complexities of parenthood as an immi-

grant parent in the U.S. through theological lens.

Living Together follows the first resource that was published in this series, called "Living Between." The first is designed for 10th graders and also has resources for facilitators and parents to go along with it.

A resource for seniors in high school is also set to be released next year, which will complete the series. Living Between and Living Together respectively has 32 and 34 lessons, while the upcoming resource for high school seniors will have 34 lessons, making a total of 100 lessons in the series.

G2G is a think tank comprising of many first and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 academics and ministers, and has repeatedly shown interest in providing resources to help Korean Americans build and discover their identity, as shown by this series and another resource G2G published in 2011 called "iIdentity."

This focus on the younger gen-

eration is a unique quality of G2G. Though the history of the Korean immigrant church in the U.S. goes back more than 100 years, not many resources were made specifically for the Korean Americans within this specific context, and most Korean Americans had to either rely on Korean resources translated in English, or English resources that were catered for the general American public.

"Living Together is an excellent resource for high school students who desire to know and grow in Christ," said Dr. Benjamin Shin of Talbot Theological School.

"The writers of this book bring years of experience with a practical approach discussing relevant and current topics that many Korean North American youth face on a daily basis," Shin continued. "This work is very commendable and should be adopted by every Korean church that has a youth group in it."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g2gcenter.org.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Church Pastors, XVII: A Special Calling for Each Generation

BY RACHAEL LEE

Pastor Daniel Han is the English ministry (EM) pastor of LA Dongsan Church, a Korean immigrant church located in Los Angeles, CA with some 300 congregants. The EM of the church, called Restore Fellowship, has some 15 to 30 regular members.

Han grew up in LA Dongsan Church, which was planted by his grandfather and is currently led by his father, Reverend Ki Hyung Han. Han said he personally felt a calling to go into ministry, particularly to minister to youth, and initially began pastoring in other churches. Though LA Dongsan Church also had other EM pastors previously, Han had built up much trust with the congregation already due to the fact that he had grown up in the church, as well as in the way he led as a pastor in different contexts. As a result, the leadership eventually asked him to take on the EM pastor position.

Q: How does the fact that your father is the senior pastor affect your role as the EM pastor?

A: Since I am his son, there is a level of trust there that's already established. And he probably tries to help me as much as possible, just like any father would. So there are probably some privileges I get in that sense.

One of the challenges is that because he does want what's best for me, he does have higher expectations for me in terms of how I carry myself, how I dress, office hours, and all of that -- he wants me to dress in suits and come to early dawn prayer, for example. I feel that I need to be above re-

proach in all these areas.

But whether I'm at this church or another church, I think it's a blessing that my grandfather and my father are pastors. It's not to say that I directly carry on whatever spiritual anointing or power that God has given them -- I feel that God has given me a special calling and ministry. But my father set a good example for me, just by the way he carries himself, and the person that he is.

Q: LA Dongsan Church is also the church you grew up in -- how has that affected your role?

A: Again, I think that trust factor is definitely a major privilege that comes with serving at my home church. They [the church leaders] trust that I'll use the finances wisely and let me invest in long-term projects, like our website, for example.

A major challenge is that if I'm not careful, I can become lazy because it's comfortable. We can easily slip into going through the motions of church life, and just doing things the way we always did in ministry. But that could prevent us from doing ministry the way God intended.

I try to counter that by intentionally seeking out friends who are pastoring in other ministries -- at least one friend per week. For a lot of churches, the EM pastor is kind of on his own because most if not all of the other pastoral staff are Korean speakers. So you kind of have to keep yourself accountable to make sure you're on top of things, and it could get lonely. That's why seeking out other pastors in other churches is really important.

Q: Going back to what you said about dressing in suits and going to early dawn prayer -- one of the major struggles of EM pastors is that of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himself and the senior pastor. How do you go about bridging the gap between the two cultures?

A: When it comes down to it, in a worldly sense, I think we [the pastors] are technically the church's employees, so if the church wants to do things a certain way, we should submit. But ultimately, we are servants of God above all else, and if God doesn't want to do certain things, then we have the right to refuse that and move on. Sometimes God does want us to submit, even if it isn't what we want to do.

I do vocalize to Reverend Han that this next generation is going to b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and that we need to be more experimental in the way we do ministry now, especially since the age range is mostly older in our church. If we don't do something right now to bring younger people into the church, there's going to be a problem down the road. I try to bring that realization to him.

That's one of the difficulties of being in a traditional Korean church. You want to accommodate to the older generation who is traditional, but you also want to go all out in developing the younger generation.

Every generation is different, and God wants the church to depend on Him each day, and in each generation. And what worked for one generation doesn't necessarily work for another.

Q: How do you go about do-



Pastor Daniel Han is the pastor of the English ministry (EM) at LA Dongsan Church in Los Angeles, CA.

ing that -- telling Reverend Han that perhaps the church needs a change, or suggesting new ideas to him?

A: Whenever I'm bringing something up, I try to make sure that I'm doing it with a heart of humility, to make sure he doesn't feel attacked or as though he's doing something wrong. So usually I would approach him on a one on one basis.

Sometimes, he doesn't take up the idea right away, so I just need to be patient. I had to ask him for a long time for one of my ideas to do a joint revival conference with KM and EM recently. I had to come back to him and remind him again repeatedly for a while. He eventually agreed and was really encouraged by the event.

Q: One of the privileges you said you had in having your father as

the senior pastor was that he and you already trust each other. How would you advise other EM pastors who may not have that kind of relationship with their senior pastor as of yet to go about approaching him with new ideas?

A: Again, I think having humility before him is really important. But I would also encourage them to show that they love the church as a whole -- that they have the same objective as the senior pastor, and that they're on the same team together. Show him, 'I really care about the KM, and I really care about you.' They need to solidify that.

This is one in a series of interviews with pastors who either serve in English ministry (EM) or have a heart for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Asian American church.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세크라멘토	916.363.2378	Smile Home Shopping
하와이	808.947.8086	Herb Land
달라스	972.620.2900	Royal Health Department
시애틀	206.229.5466	Health Village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